






아이티 지진구호 협력사역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회

아이티 중장기 지원

연합사역 모색

- | 일 시 | 2010. 3. 30(화) 14:00
- |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1층 소강당(종로5가 소재)
- | 주 최 | 한국교회 아이티 연합
- | 후 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 감사단체 |  **KD**
Korean Diakonia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아이티 지친구호 협력사역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회 아이티 증장기 지원 연합사역 모색

⋮

Ⅰ 아이티 지진구호 협력사역을 위한 세미나 Ⅰ

⋮

한국교회 아이티 중장기 지원 연합사역 모색

⋮

| 순 서 |

□ 1부 경건회

인도 : 최 희 범 목사(한국교회희망봉사단 총무)

◇ 목 도 : 다같이

◇ 찬 송 : 96장(예수님은 누구신가)

1.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자의 위로와 없는자의 풍성이며
천한자의 높음과 잡힌자의 놓임되고 우리기쁨 되시네
2.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자의 강함과 눈먼자의 빛이시며
병든자의 고침과 죽은자의 부활되고 우리생명 되시네
3.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자의 정함과 죽을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평화 되시네
4.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세상의 구주시며
모든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되고 우리영광 되시네

◇ 기 도 : 육 광 철 목사(예장(백석) 사회국장)

◇ 성경본문과 제목 : 신명기 15 : 7~11 “**가난한 이와 함께하는 한국교회**”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8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9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 설 교 : 손 인 웅 목사(한국교회 아이티연합 의장)

◇ 격려사 : 권 오 성 목사(NCCK 총무)

김 운 태 목사(한기총 총무)

◇ 축 도 : 하 귀 호 목사(예장(합동)구제부 서기)

□ 2부 세미나

◇ 사회 : 김 종 생 목사(한국교회희망봉사단 사무총장)

◇ 세미나

1. 에큐메니칼 디아코니아 / 박 종 삼 목사(월드비전 한국 회장)
..... 8
2. 아이티의 역사와 현실 / 이 승 열 목사(예장(통합)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
..... 29
3. 한국정부의 아이티 지원계획 / 이 재 완 과장(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 인도지원과)
..... 55
4. 한국교회의 효과적인 아이티 지원사역 / 박 재 범 목사(기아대책 CDP개발본부 본부장)
..... 57

◇ 종합토론

◇ 폐 회

아이티 국민에게 힘이 되는 한국교회로!

손 인 응 목사 (한국교회 아이티연합 의장)

한국교회는 민족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이 되어 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었고, 무지하고 가난했던 시절에는 어린이와 여성의 교육, 농촌계몽 운동을 포함하여 사학으로 국민교육의 토대를 세웠고, 의료기술과 시스템이 전무했던 시기에 국민건강을 돌보는 병원을 세웠으며, 6.25 한국전쟁이후에는 전쟁고아와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시설을 시작하는 등 한국 사회복지의 단초가 되어왔습니다. 6~70년대 경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옹호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착근시키고, 도시빈민들의 자녀를 대신 돌보고 학습을 지원하는 공부방과 저소득층 주민들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해야 할 의무사항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립과 나아가 고령화시대 노인들의 복지와 여가를 풍요롭게 만드는 노인교실에 이어 서해안 원유유출 사건시 80여만명의 방제작업 자원봉사, 양극화시대 용산참사 중재와 같은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픔과 갈등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울며 고통을 분담해 온 한국교회가 중남미 아이티의 지진구호에 팔을 걷어 부치고 앞장섰습니다. 그것도 산발적으로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협력사역을 시도하기 위하여 <한국교회 아이티연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교단과 봉사단체 그리고 기독교 NGO등이 같이 모여 아이티 이재민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한 대책을 숙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모으고 함께 조정해 갈 수 있다면 보다 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지원사역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대단한 성금으로 아이티에 관심을 보여준 한국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아이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러 NGO들과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향후 지원계획과도 사역을 공유할 뿐 만 아니라 다른 세계 국가들,

세계교회들과도 호흡을 맞추어 중복과 누락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된 이번 세미나에서 단순한 동정과 우리 중심의 이기심과 조급한 성과위주의 사고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현실에 근거한 냉철한 입장에서 다양한 제안과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아이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가장 합리적이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한국교회 아이티연합의 사역이 보여지는 사업보다는 보여지지 않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본연의 사역으로 “재난고아를 아이티의 지도자로!” 찾고 키워가므로 아이티에 당장 필요한 “떡으로부터 말씀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사람을 남기는 지원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미약한 자리지만 함께해 주신 여러 교단과 단체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모든 강사님! 그리고 실무를 맡아 수고하시는 모든 분 그리고 아이티 현지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

박 종 삼 목사(월드비전 한국(회장))

I. 서론

개신교의 사회선교를 위한 연합운동의 배경

지난 20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한국교회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 막12:31)”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려는 사회봉사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봉사신학’, ‘사회구원’, ‘디아코니아 신학’의 근대적 의미를 도출하려는 활발한 ‘복음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사회봉사운동을 선교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복음전도와 함께 복음실천활동을 교회선교의 핵심적 두 개의 축으로 받아드리려는 신앙적, 성경적, 신학적 이해의 노력과 기도는 드디어 교회의 지역사회(사회)봉사를 핵심적인 복음적 사명으로 대부분의 교회와 교단, 그리고 신학계에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교회는 지금까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눅 10:25-37)”라는 종래의 질문에서 “우리(한국 교회)는 한국과 북한,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에게 어떤 이웃이며, 또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사회선교의 질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세기 한국교회들이 ‘교회성장’에 모든 힘과 자원을 사용할 결과는 비록 큰 교회건물이 세워지고 교인 수가 증가되기는 했었지만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교회성장이 둔화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에 이르러 교인들의 감소현상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성장주의의 복음전파와 복음실천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지역사회봉사를 교회선교(계속적 성장)의 주축으로 하는 사회선교의 새로운 전략이 개교회, 각 교단, 그리고

신학계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사회복음(Social gospel)’에 대한 이해는 에큐메니컬 진영의 ‘교회와 사회에 관한 세계대회(1966)’, ‘웁살라 제 4차 W.C.C. 대회(1968)’, ‘방콕세계선교대회(1973)’, 그리고 ‘나이로비 제 5차 W.C.C. 대회(1975)’, ‘밴쿠버 제 6차 W.C.C.대회(1983)’ 등에서 연속적으로 논의된 복음선교의 사회참여문제의 결론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별히 W.C.C. 진영의 타종교를 포함한 세계교회의 일치를 주장하여 사회참여를 경계하며, 성서적 구원을 변질시켜 경제·정치·사회·문화의 투쟁을 구원의 방편으로 W.C.C.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복음주의 진영에서 ‘세계복음화 국제회(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sm)’가 1974년 로잔에서 개최되었다. 세계복음주의 진영을 대변했던 성경적, 신학적 거장 존 스토틀(John Stott)는 이 대회를 위시하여 복음주의 진영 교회들이 보다 더 사회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을 하면서 ‘사회참여는 오히려 복음주의적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존 스토틀의 저서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박영호 역, 1997)– ‘New Issues Facing Christian Today(John Stott, 1984)’가 발간된 이래 복음주의 진영의 한국교회들도 한국교회의 사회참여에 대한 지난날의 부정적, 방어적 자세에서 그 태도를 변화시켜 사회선교, 사회봉사, 사회복음운동 등에 적극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20세기에서 새천년,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특히 양 진영을 대표하는 대형교회들은 보다 적극적인 복음선교적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개교회주의 개신교에서는 교회 주위에 있는 지역사회들(주민, 시민사회, 지방정부)로부터 의미 있는 긍정적 반응을 받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빈곤문제, 노동자 문제, 인권문제, 외국노동자 문제, 다문화 가족문제, 재난에 따르는 거시적 구호문제에 대한 개신교적 대응은 교단차원이나 개신교 공동체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했다.

반면 ‘집합 교회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가톨릭교회의 대 사회적 봉사·옹호활동은 전체 사회·국가적인 관찰의 대상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전체 사회가 공감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신앙적 관심이나 가톨릭교회의 참여(문제가 해결 되건, 일부가 해결되건 말건 간에)는 국민적 반응(지지 또는 주목)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개신교의 사회공헌총량을 전국적으로 합산하면 다른 종단의 그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으나 사회로부터의 평가는 받지 못해 아쉬워할 때가 있다. 반면 집합교회주의 산하에 있는 가톨릭교회는 개신교의 지역사회봉사기능에서 자율성을 갖고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지역구에 신중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선교모델에 대해 부러움을 나타내는 경향도 있다.

21세기의 사회문제들 중에는 개교회 능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부각되어 개신교 교회들 간의 연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대 사회적 큰 사회문제를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들 간의 연대가 필연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고, 또한 개신교의 대 사회적 선교라는 차원에서도 연합운동은 강력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지난 20여년에 걸쳐 개교회 차원에서는 지역시민사회, 지역 NGOs, 지역사회복지전문기관, 지방자치제 등과 함께 ‘파트너십(Partnership; 동역관계)’을 맺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개신교나 다른 종단들은 1980년대에 이르러 당시의 경제개발 제일주의를 신봉하던 정부들이 ‘복지국가’ 건설을 약속하면서 그 실천을 위해 종교계가 복지책임의 일부를 담당해 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교회는 교단적 차원이나 전체 개신교적 차원에서 공동체적 책임을 갖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초교회적, 초 교단적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모든 교단의 사회정책이 사회선교위원회를 통해 수립되기 시작하였고, 교단소속 교회의 협력적 관계가 실질적으로 대두되었다. 특별히 북한을 돕는 일이나 국내·외 재단에 대처하기 위한 기독교계의 공동체적 사회선교 구조나 기능은 에큐메니컬적(Ecumenical) 교회 일치 운동의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개신교회의 사회선교는 ‘기독교사회복지’, ‘교회사회복지’, ‘교회사회사업’, ‘기독교사회봉사’, ‘교회사봉사’, ‘사회복음’, ‘사회복지(Social Pastoral Care)’, ‘복지목회’, ‘사회구호·자선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한국교회에 나타나서 많은 교회지도자나 평신도들은 사회선교의 개념이나 실천 ‘패러다임’을 이해함에 있어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박종삼, 2000, 2002; 박영호, 2001; 최무열, 1999; 김장대, 1998)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사회선교를 중심으로 나타날 논쟁의 중심은 ‘전도’와 ‘봉사’의 관계에서 ‘전도’는 교회선교의 핵심을 이루고 ‘봉사’는 주변적(marginal) 요소로 핵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예시에서 사회봉사의 다양한 신학적 이론들이 ‘선교신학’, ‘에큐메니컬 운동’, ‘하나님의 나라’, ‘교회사의 전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되었다.(이삼열, 1992) 이 신학적 고찰에서 선교학 신학자 서정은 교수의 ‘통전적 선교관(wholistic mission)’은 통전적 선교를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실천이라는 두 요소를 불가분리적 관계로 보는 선교신학의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한국교회에서의 사회선교의 복음적 근거를 이해시키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본다. 이 통전적 선교관은 복음주의 사슬이나 에큐메니컬 노선에서 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포괄적 ‘패러다임(통전적 선교=전도+교육+봉사+친교)’이 있기 때문에

20세기 중반에 한국교회가 사회선교(사회봉사)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그리하여 기독교사회복지 연구회, 기독교사회복지학회, 교회사회사업학회(및 연구소), 기독교사회복지시설 연합회(아동복지, 복지관, 장애인복지 등 다양하게 세분화 됨)들이 조직되어 에큐메니컬한 연합·일치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이때에 대표적 연합운동으로 나타난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05’는 사회봉사를 중심으로 한국 개신교계가 산출한 ‘에큐메니컬 교회연합운동’의 가장 훌륭한 예라고 생각한다.

또한 세계교회에서 시작하여 한국교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복음주의로서의 사회봉사신학과 에큐메니컬 노선의 사회선교의 신학적 갈등의 남은 ‘불씨’들은 독일 교회를 중심으로 한 ‘디아코니아 신학(Diakonia)’의 도움을 얻어 교회사회봉사(사회선교)의 복음적 토대를 확고히 세우게 되었다.

II.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 운동을 산출한 두 개의 재난과 한국 개신교의 사회선교정책

한국 개신교는 복음이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선포된 이래 주로 지역적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위한 다양한 교회연합운동들이 조직되었고 때로는 전국적 차원에서 악의 세력에 복음적으로 항변하는 저항운동을 통해 모든 교회들이 단합하는 개신교의 복음적 연합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과 중반에 불어 닥친 세계교회의 분열현상은 여러 선교회들이나 선교사들,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해 온 신학 사조들이 한국교회를 심각하게 분열시켰었고 한 교단 안에서 여러 갈래로, 적대적으로 분열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이것은 교회 안·밖에서 볼 때 매우 가슴 아픈 현상이었다.

이런 다양한 분리된 교회나 선교회들의 비효율적 대립과 난립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교회협의회(W.C.C.) 교회 일치 운동은 한국에서 정치적·사회적 이념문제와 얽혀져 개신교회를 사분오열로 분리시키는 악제가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우리 사회와 경제적 부흥과 민주화의 결과 어느 정도 안정됨에 따라서 분리된 교단·교회들이 균형을 찾기 시작했고 봉사신학, 디아코니아 신학, 통전적 선교관 등 교회가 보다 성숙한 성경적·신학적 이해를 갖게 됨으로써 사회선교를

위한 교회의 연합·협력 운동의 터전은 마련되게 되었다. (서론에서 충분히 언급함)

그런데 21세기에 이르러 근래에 일어난 지구촌적 자연재난사건이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 운동을 실질적인 조직체로 나타나게 하였다. 그 재단은 첫째, 2007년 12월 7일 서해안에서 원유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 한국의 온 교회가 온 국민과 함께 하나가 되어 태안의 재난현장을 찾아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과 피해주민을 위한 개신교계의 연합된 사회봉사가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한국교회가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이 재난과 한국교회의 봉사는 한국교계 지도자들로 하여금 신학과 교회의 틀에서 이룩하지 못했던 교회일치운동이 ‘디아코니아’ 봉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 재난의 결과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을 조직하여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의 비전을 가시적 개신교계의 봉사기구로 출범시켰고, 이러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 사회복지협의회를 위시한 몇 개의 단체가 모여서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을 조직하여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이 개신교의 사회선교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단체는 복음주의로선, 에큐메니컬로선, 보수신앙, 진보신앙 등 다양한 신학교 신앙을 지닌 대표적 교단들과 교회가 단합하였다는데서 한국교회사에 큰 의미를 던져주는 역사적인 ‘연합운동’이라고 본다.

앞에서 열거한 재난에서 두 번째 재난은 2010년 1월 12일, 리히터 7.0 강진이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강타하여 약 21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전체 인구의 약 15%인, 150만 명이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구촌적 대 재난의 소식에 접하여 새로 출범된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은 한국교회가 각 교단별로 구호성금을 모금하고, ‘한국교회아이티 연합’을 조직하여 모금된 82억 원(2010. 2. 18 기준)을 아이티 재난 구호사역으로 활용하는 놀라운 교회연합운동을 펼치기에 이르렀다. 아이러니하게도 2개의 지구촌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의 비전을 실현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 성숙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이라는 최악의 지구촌적 상황 하에서 오늘 날 100개 나라에서 4만 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1억 명의 가난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월드비전 선교기과 곧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를 출범시킨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 1990년대 세계 월드비전 총재의 직책을 맡았던 호주인, ‘그램 얼바인(Graeme Lrvine, 1996)’은 “최악의 시기 속에 나타난 최선의 것들(Best things in the Worst Time)”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어려운 상황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는 복음적 선포가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근래 사역에서도 나타남은 곧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개신교 교회들이 연합하고 합심하여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 사회선교를 효율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확고한 성경의 교훈에 입각한, 건전한 디아코니아 신학을 정립하고 하나님의 사랑, 곧 복음에 입각하여 현재 국내·외(북한을 포함하여) 가난한 이웃들의 생존권, 복지권, 인권 등을 포함한 영적 구원을 보장해주는 ‘진정한 섬김과 나눔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실제적인 사역의 내용과 궁극적이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 사 포로 된 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28-29)”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 하나님의 선교도구(방법)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한 (눅 4:28-29) 예수님의 ‘선교 정체성’, ‘선교 비전’, ‘선교 소명’, 구체적인 ‘선교 목표’, ‘선교 전략’, 그리고 ‘선교 투명성’과 ‘선교 사회책임’, 또한 ‘선교결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 설정’이 명확히 제시될 수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로서의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를 실천할 수 있는 기본 선교적 사제나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인간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사역(눅 4:28-29)’의 내용에서 우리 개신교의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을 받고,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의 ‘가난한 이웃을 위한 한국교회의 책임 있는 복음적 사회선교의 정체성, 비전, 소명, 목적, 목표, 전략’에서 다음과 같은 암묵적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날카롭게 들여다보고 분석할 수 있는 용기와 투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구원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신의 선교사역의 내용과 그 우선순위의 선정 (Priority Setting)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음 사항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일도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 선교의 필수적 요소가 된다고 본다.

첫째,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사회봉사, 사회선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부, 사회, 타 종단, 시민사회 등에서 한국개신교의 사회봉사의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실추되고, 낮게 평가되고 있는 개신교의 위대한 사회공헌도를 보여주자. 그러기 위해 개신교의 모든 교회, 기독교사회복지 기관, 그리고 사회 속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개신교 교인들의 모든 역량을 규합하여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의 ‘사회적 무대에서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자.

둘째, 개신교의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 선교의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는 한국교회 복음전도의 강력한 수단으로 인간의 영혼구원사역을 사회선교의 핵심으로 삼자.

셋째,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사회선교활동의 전개는 가능한 한 한국교회의 국내·외 선교를 강화하고, 그러므로 국내·외 개신교 선교단체를 통하여 구호사업, 개발사업을 펼쳐나가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을 세워나가자.

넷째,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사회선교활동은 가능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주도하에서 한국 교회의 주도적 접근을 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 대한민국, 한국인의 명성을 드높이는데 이바지 하도록 하자.

이상과 같은 유혹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기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는 별로 없으리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태안반도 기름유출재난이나 아이티 지진재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심증을 하나님께서 깊이 감찰하시고, 또한 실제로 우리가 사회선교정책수립이나 그 실천전략을 세울 때 우리 개신교 사회공동체가 보여 준 사회적 행동(social behaviors)이나 토론의 내용들이 우리의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실천의 잣대를 개관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본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이웃이 되겠다고 자신의 선교사명을 제시한데 반하여 우리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은 ‘우리의 가난한 이웃’이 한국교회사회선교에서 어느 위치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사회선교, 그러므로 가난한 이웃 중심의 사회선교 원칙이 복음적인데 반하여 ‘한국교회선교중심’, ‘한국교회중심’, ‘한국, 한국인 중심’의 선교정책을 세우려는 유혹에 빠지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역사에서 또 한 번의 큰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오히려 ‘Best Things in the Worst Times’이 아닌 ‘Worst Things in the Best times’ ‘최고의 (선교)시기에 최악의 것(선교활동)’을 만들어 내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복음적 질문은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 하나님의 최대관심대상이며 주님의 최대 명령인 ‘가난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이웃’이 되어서 복음적 사회선교의 실천을 하려고 하는가 라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Ⅲ.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 한국개신교를 대표하는 사회선교의 전략적 개신교 연합체로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회선교를 국내·외에서 책임성을 지닌 지속가능한 기구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질문들

지난 세기와 금세기의 많은 조직경영자들은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질문과 조언을 던지고 있으며 '한국교회희망봉사단'도 지금 출범하는 단계에서 주목할 만한 제언들이라고 생각한다.

1. 연합체의 조직으로서의 성장발달단계

첫째단계, 어떤 개인들이나 단체들이 그들의 공통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의 연합체로 모인다는 것은 훌륭한 시작(Good beginning) 곧 의미 있는 출발이다.

둘째단계, 이 단체들이 조직한 연합체에 속하여 계속 남아 있는 것은 훌륭한 진전(Good progress)이다.

셋째단계, 이 단체들이 소속된 멤버로 함께 목적 성취를 위해 공동의 사역을 협력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은 훌륭한 성공(good success)이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은 지금 첫 번째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 지속 가능한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 연합체로 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적어도 일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에 대한 연합 공동체적 이해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2.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 2008)의 비영리단체의 다섯 가지 경영학적 질문에 대한 선교 신학적 함의의 이해와 활용

지난 20세기 경영학의 대가인 미국의 피터 드러커 교수는 그의 저서(2008) '비영리 단체를 개선하는 다섯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경영원칙'에서 우리가 막 출범시킨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회선교 경영을 위해 반드시 주목해 볼 만한 다섯 가지 질문을 소개하고 이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답변을 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연합체의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의 구체적 사역의 방향과 정책수립, 사역의 내역이 정립되길 바란다.

첫째,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의 고객(섬김의 대상)은 누구인가?

셋째, 우리의 고객(예: 가난한 이웃)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넷째, 우리의 결과(들을 위한 사회봉사 등)는 무엇인가?

다섯째, 우리의 계획(달성하지 못한 결과 성취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상의 다섯 가지 질문은 시작단계에 있는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선교적 정체성, 소명, 목표, 전략, 평가기준 등을 설정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선교적 질문으로 대처시킬 수 있다고 본다. 사실 21세기의 사회선교는 19세기에 만연되었던 사회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구호, 봉사 등의 이론이나 방법으로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 21세기의 사회선교는 사회적 책무성을 요구하는 체계적, 전문적, 동역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3. 한국의 전쟁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하여 세계기독교인들의 동역사역 (Partnership Mission)의 근대적 지구촌 구호·개발·옹호기구(기독교 국제사회선교단체)인 월드비전에서 기본적으로 스스로에게 제기하는 질문들을 통해 ‘한국교회희망봉사단’에게 던지는 사회선교신학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본 질문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월드비전(이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Christian Identity)

둘째, 우리의 비전(Vision)은 무엇인가?

셋째, 비전실현을 위한 우리의 소명(Mission)은 무엇인가?

넷째,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Goals)는 무엇인가?

다섯째,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전략(Strategies)은 무엇인가?

여섯째, 우리의 사역을 사회가 감시할 후 있는 투명성(Transparency)은 어떻게 보장하는가?

일곱째, 우리의 사회적 책무성(Accountability)은 어떤 것인가?

여덟째, 우리 사역의 성·패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Evaluation Standard)은 시초부터 설정되어 있는가?

IV.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의 신학과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사회선교를 중심으로 한 연합운동(Unity Movement, Ecumenical Movement)과 복음적 사회선교(Evangelical Social Ministry)

1. 하나님의 선교와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지금까지 사회선교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범교단적 교회의 일치와 연합체를 구성하지 못한 교회 선교적 과제를 갖고 있었다. 그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는 사회선교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이해와 해석이 보수신학진영, 중도신학진영, 진보신학 진영에서 일치를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 대한 양보 없는 교리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장벽을 쌓고 의미 있는 대화가 없이 때로는 서로를 적대시 하는 반 복음적 교회(교단) 관계가 복음적, 성경적 원리와 원칙 아래 오랜 세월을 허비해 왔다. 이 결과 각 시대에 적합한 교회선교정책의 수립과 실질적인 사회봉사가 연합된 개신교 공동체에 의해 실시되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집행할 교회가 오리려 하나님의 사랑의 선교사역의 장애기관으로 전락하는 잘못을 범한 역사적 과오를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는 진정한 모금이 보여 져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성령이 한국교회에 임하시 가난한 사회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통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한국교회를 택하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보내시 가난한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져주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며 그들의 어려움을 섬기고 그들을 짓누르는 사회악을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로 개혁함으로써 가난한 이웃들이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곧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비전이며 사명이라고 본다.

2. 에큐메니컬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 간에 있었던 성경적·신학적 갈등의 유산과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의 성경적·신학적 이행의 공유과제

얼마 전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 오랜 기도와 논의와 교회지도자들의 선교적·신앙적 결단에 의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수·진보를 망라한 선교공동체가 선교 100여년 만에 이루어 졌을 때 우리 모두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제는 일치된 하나의 ‘교회’로 하나 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개신교 교회가 가난한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선교사역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이 ‘한국교회희망봉사단’에게서 넘쳐흐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비전이나 희망은 우리가 함께 모였다고 모든 사회선교사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교회의 사회선교는 인간구원의 사역이며 특히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가난한 이웃들의 구원문제다.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교회역사가 주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성취시키기 위해 십자가 삶에서 목숨을 버리는 사역을 시작으로 초대교회를 비롯한 전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고통을 겪어 왔는지를 상기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사역은 십자가의 길인 동시에 그에 상응한 면류관의 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을 중심으로 전국에 산재한 교회들이 지역적, 국가적, 지구촌적 사회선교연합체를 계속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성경적·신학적 사회봉사선교의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에큐메니컬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의 신학적 대결, 보수와 진보 간의 신학적 대결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겸손한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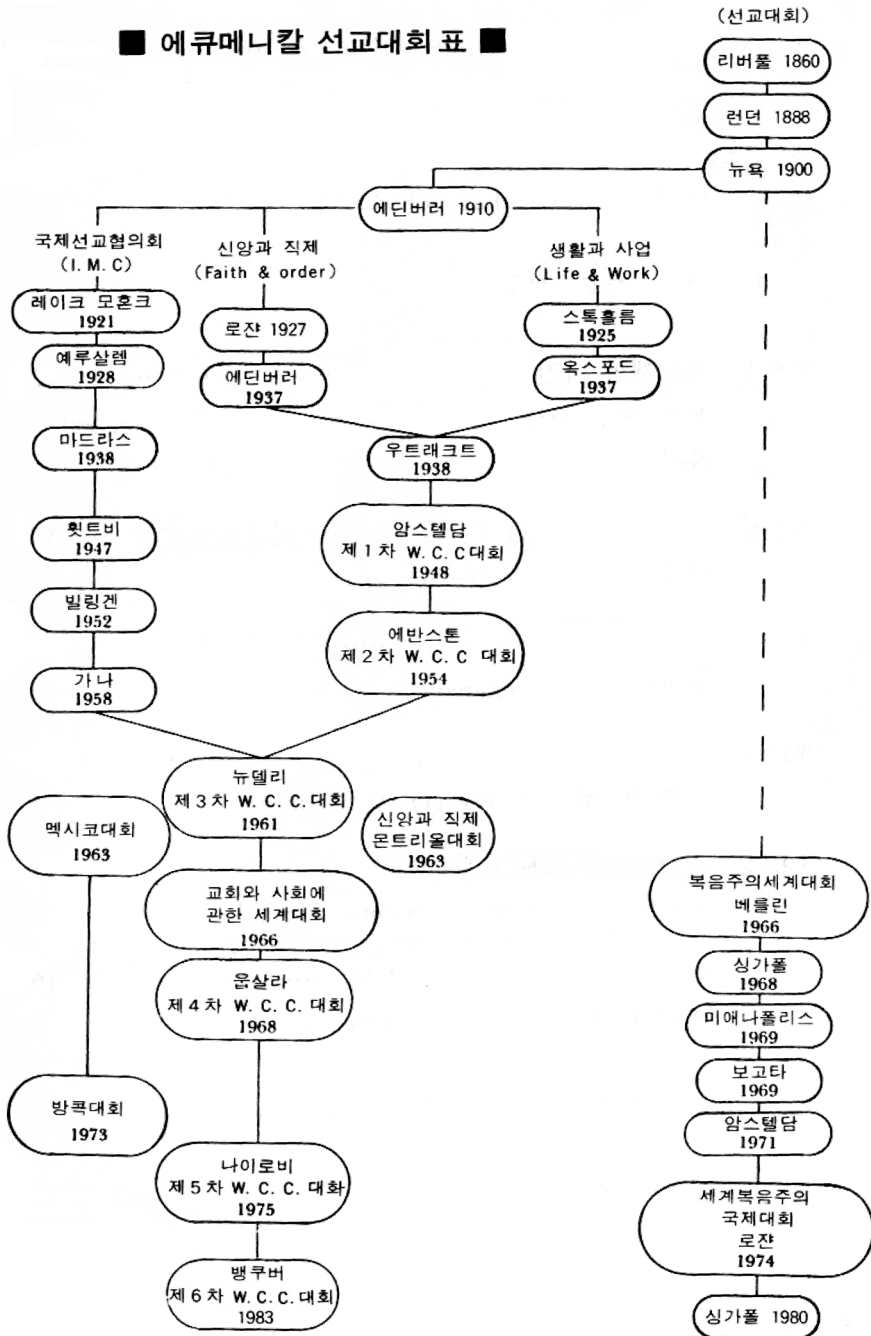
3. 에큐메니컬 운동과 교회일치운동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중심으로 지속되어온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작은 본래 복음주의적 선교현장에서 세계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목적으로 세계교회가 함께 힘써온 교회일치운동으로 한국교회가 효율적 선교를 21세기에 펼쳐나가기 위한 교회연합체인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한다. ‘Ecumenics’라는 저서를 통해 에큐메니컬 운동의 신학과 역사가 서구교회에서 소개된 이후, 이 도서가 한국복음주의 선교학회 지도자들(전재욱, 전호진, 송용조, 임흥빈)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고 편집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셨다고 본다.

‘에큐메닉스(성광문화사: 한글번역, 편집본, 1988)’는 교회의 일치문제를 선교적 차원에서 다루는 분야이다. 19세기가 선교의 시대였다면 20세기는 ‘에큐메니컬 시대’라고 교회지도자들이 일컬었으며, 교회연합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운동이기도 했다. 교회일치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와 더불어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간주되어 왔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의 영적연합에 의한 일치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함도 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교파와 교회와 선교회들이 난립되어 지나친 경쟁을 하고 있는 선교현장에서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하여 교회의 영적 일치성을 추구하기 위한 일련의 세계교회대회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주관 하에 개최되었다(표-1 참조).

그러므로 '에큐메니컬 운동'은 '선교와 교회일치'를 위한 세계교회의 운동으로 21세기 한국과 세계무대에서 효율적인 사회선교를 펼치기 위해 교회일치를 도모하는 선교 전략적 운동이며 교회일치의 본질을 회복시키려는 운동이기도 하다.

■ 에큐메니컬 선교대회표 ■



에큐메니컬(교회일치) 운동은 가능한 한 교리의 순수성과 교파의 정통적인 특성을 상실함 없이 일치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은 교회의 주장이다.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에서 W.C.C.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면밀히 지켜볼 때, 이 운동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할 정도로 신학사상의 이질화 현상이 심화되고 사회정의 실현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여 기독교를 투쟁일변도로 몰아간다고 생각하여 유감을 금치 못하게 되었다.

에큐메니컬 운동과 그 신학이 한국교계에 소개되었을 때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은 새로운 분열과 기종의 분열된 보수·진보 간의 간격을 더 넓히고, 그들 사이의 장벽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어떤 신학자들은 초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미국 교회와 선교사들로부터 영적활력은 성공적으로 물려받았으나 연합정신은 배우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보았다. 물론 당시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사회철학과 이념 등을 고려하여 한국교회가 연합정신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를 근대적 시각에서 조영해 보는 것은 오늘의 교회일치운동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4. ‘디아코니아’ 신학과 한국교회희망봉사단

교회나 기독교인 및 기독교 단체나 기관, 연합봉사단체, 선교단체의 모든 생각(Thinking), 느낌(Feeling), 그리고 행동(Behaving)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관·신학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개신교가 근래에 창설하여 출범시킨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사회봉사(선교) 활동의 내용은 이 연합체에 참가한 교파, 교단, 단체, 개인의 사회선교에 대한 성경적·신학적 이해의 일치성이나 상이한 신학의 포용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미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 같이; ‘개인구원과 사회구원’, ‘전도와 사회봉사’, ‘사회봉사(구호·개발 등)와 사회개혁’, ‘사회봉사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역할’, ‘신앙과 과학’, ‘전도와 봉사의 독립성과 종속성’ 등 다양한 기독교 교리와 이념 등에 따라서 교회의 사회선교를 위한 일치성을 추구할 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왔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이 신학적 혼돈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을 중심으로 한 사회선교공동체의 성장과 확장은 그리 쉬운 과제는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디아코니아’ 신학은 그것이 성경 중심의,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사역 패러다임의 이해에서 정립되었고, 근대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선교 신학, 봉사신학을 기독교의 핵심적 원칙이 되는 성경적 그리고 복음적 기반 위에서 정립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사회봉사선교

의 일치성을 추구하는데 크게 공헌해오고 있다. 한국교회에도 20세기 후반에 유럽(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정립된 디아코니아 신학이 한국교회신교를 중심으로 한 해석과 실천모델로 사회선교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다.

교회의 사회봉사를 말하는 ‘디아코니아’라는 신학적 용어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에 따라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봉사를 말하는 것으로 기독교적인 봉사를 전제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세속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나 사회사업봉사와는 그 봉사의 동기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비록 봉사의 방법(사회사업방법 등)은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 있겠으나 디아코니아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한 동기에서 봉사(Diakonia)가 이루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봉사자는 예수님, 자신이었다. (박종삼, 2000)

기독교적인 봉사학은; 첫째, 복음의 전파와 복음의 실천, 둘째, 사회구원의 선교(사회선교)와 봉사, 셋째, 사회구조적 선교와 사회구조적 봉사, 그리고 넷째, 사회사업적 봉사와 사회선교적 봉사 등의 교회의 사회봉사를 논하고 있다(이삼열, 1992).

독일 디아코니아의 경우, (1) 치유활동을 통한 봉사, (2) 복지사업을 통한 봉사, (3) 사회상담을 통한 봉사, (4) 사회교육을 통한 봉사, 그리고 (5) 사회발전을 위한 봉사 등이 있다. (Schober and Seibert, 1982)

‘디아코니아’ 봉사신학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수·진보를 망라한 대부분의 교회가 사회선교의 연합체에 속하여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성경적·신학적 건전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V.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를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이 국내·외 봉사의 현장(사회선교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연합체 조직운영의 원칙에 관한 몇 가지 제언

1.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의 실천을 위한 교회 연합체의 준비성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을 창설하여 출범시키는데 주역을 맡아 일하신 한국교회와 교회지도자들은 한국의 서해안 태안의 원유유출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와 주민들의 생업을 상실하는 재난복구에 참석하면서 이러한 국가적 재난에 대처할 교회의 준비성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2010년 1월 아이티의 지진재난이 일어나 이재민을 돕고자 하는 연합체로

‘한국교회아이티연합’이 결성되어 국제구호사업을 시작했을 때 교회를 통한 82억 원의 모금실적은 어느 정도 성공적 결과라고 볼 수 있었다. (월드비전 한국은 단일 국제구호·개발 기독교 기구로 38억 원이 모금되었다)

이 구호기금은 아이티의 재난 이재민을 위해 긴급구호의 성격을 띄우고 있고, 인간의 생명들이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위협(상처, 기아, 식수난, 주택난, 공포 등등)을 받고 있는 삶의 현장, 생명의 현장, 재난의 현장에 조속한 시간 안에 생명자원으로 82억 원이 투입되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은 ‘한국교회아이티연합’이라는 응급구호 과제지향적 특별기구를 조직하여 가동했으나 지구촌 반대편에 위치한 아이티 국가의 재난현장(예: 포르토프랭스, 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그 곳에 누구를 보내서 구호활동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도, 정보도, 방법도 갖추지를 못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 지구촌 도처에서 일어나는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한국교회가 아무 준비‘한국교회희망봉사단’없이 그리고 구호활동에 대한 능력도 갖추지 못한 채 무책임한 하나님의 선교기구라는 명칭만 갖고 있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다. ‘모금’만으로 지구촌 재난(자연재해, 인재)에 대비한 사회선교활동을 감당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은 21세기 국내·외 및 북한 등에 대두될 수 있는 사회선교과제들(구호·개발·옹호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적 예측성과 준비성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사회선교구조와 기능, 재원의 확보, 전문사회봉사인력의 확보, 필요로 하는 이론과 실천기술의 학습과 훈련, 관련된 여러 전문단체나 기구들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동역관계)의 체결 등, 다양한 사회선교의 기제를 마련해 놓는 ‘준비성’이 절대로 필요하다. 복음의 생명구호의 책임성은 이를 책임질 사회선교기관과 단체, 연합체의 구조적 기능적 준비성을 철저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결성은 시작에 불과하며, 이러한 구조적 ‘hardware’에 생명을 구하는 다양한 전문적 ‘software’가 개발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 전문요원들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과제는 한국교회가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기 위한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본다.

2.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운영을 위한 조직경영의 예들

개교회주의를 신봉하는 개신교의 사회봉사활동은 대개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나 어떤 특정한 지역(예: 개척교회/지역사회, 특정한 선교기관이나 프로그램 등) 사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형교회의 경우 지역사회는 물론 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국내·

외, 북한 등)을 사회선교의 영역으로 삼고 일하고 있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활동영역이나 봉사선교대상은 주로 집합교회주의에서 보든 국가적 또는 광역적 지역에서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사회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개신교 개교회의 일차적 선교(사회봉사·사회선교) 영역은 지역사회이며, 개교회 특히 중형, 대형교회, 교단 등의 필요에 의하여 집합교회적 사회선교가 요청될 때(예: 용산참사, 태안반도, 원유유출, 아이티 재난 등) 지역사회선교는 계속하면서 넓고 큰 차원에서의 사회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교회주의의 터전에서 성장한 교회들(특히 중·대형교회의 경우) 집합주의에 입각한 사회선교 연합체의 구성과 운영에서 가톨릭교회와는 차별이 있는 조직운영의 원칙들이 세워지고, 성실하게 그 원칙(규칙)을 준수할 때 집합교회 지향적 사회선교(봉사)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 (이것은 100여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나라의 월드비전 기관(독립, 준독립 실체)이 월드비전 본부를 통해서 조정, 관할, 협조 등을 받게 되는 경우 월드비전 한국과 같은 조직에서는 선교사역, 행정, 재정 등의 독립성이 있는 반면(개교회주의), 월드비전 본부의 통제와 지도를 받으며 다른 나라의 월드비전과 협력하여 50개 국가에서 150여개의 구호·개발·옹호 등의(해외선교사역) 사역을 진행함으로써 집합교회주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원칙과 절차상의 과제에 당면하게 된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앞으로의 사회선교사역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떤 사회선교를 누구에 의하여 진행시키느냐 등,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그 답에 따라서 집합주의적 개신교 연합체의 운영원칙은 차이가 있게 나타나게 되리라고 본다. 몇 가지 분명한 개교회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개신교 교회들이 집합주의 지향적 사회선교를 계획할 때 적응해야 할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 선교연합체가 적용할 수 있는 연방주의(Federalism), 그리고 각 참여교회들 간의 관계성립의 원리로서의 외부동역관계의 원칙(Principles of Partnership)을 예로 들어서 간단히 고찰함으로써 사회선교연합체가 지향하는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 운영의 구체적 운영기제(Management Mechanism)의 일부측면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개교회주의 지향적 교회가 집합교회지향적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를 협의체(단일)로 운영하려고 할 때 그 경영의 한 가지 유형으로서의 “연방주의의 원리(Principles of Partnership)”

‘에큐메니즘(Ecumenics)’는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여 효율적인 선교활동을 진행시키는 운동임을 이미 고찰하였다. 여기에서 ‘일치(Unity)’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교회희망

봉사단'의 경우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를 사회선교의 패러다임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실용적인 유형의 '연방주의' 운영체계라고 본다(월드비전의 경우 그 기능성과 실용성이 증명되고 있다).

연방주의의 원칙은 정치적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근대 연방주의 시초는 16세기 경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종류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발전된 하나의 체제이다. 근대 연방주의의 아버지로 알려지고 있는 '요하네스 알트시어스'는 루터교주가 영향을 행사하는 지방정부 및 가톨릭 황제로부터 자신의 도시 운영에 대한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창했다. 최근 연방주의 원칙을 비정부기구들(NGOs)에게 적용되고 있다. 연방주의의 틀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한 요인들 중의 하나는 조직이 역동적인 환경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에 의한 것들이었다. 연방주의를 통해 큰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작은 조직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강점을 누릴 수 있다.

연방주의의 원리를 비영리 기구에 적용하게 될 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권한과 통제역의 역설; 작은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크게 만들 필요성; 자율성을 권장하되 한계를 두는 원칙; 다양성과 공유하는 목적의 혼합; 개별성과 동역관계의 혼합; 지역현지성과 세계성의 혼합; 등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연방주의의 원리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연방주의에서 위에 열거한 역설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이 전문학자들(예: Charles Handy, 1992)에 의하여 주창되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의 예들로서 '권한부여(Empowerment)'로 '행동을 수행하게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의 원칙은 연합체 구성의 성원(단체)이 오직 상호 협력함을 통해서만 공동의 소명을 각 성원이 달성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이중시민권(Twin Citizenship)'의 원리는 각 성원(개교회, 단체 등)이 현지의 교회(기관)으로써 그 임무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세계적 사회선교기구로서의 책임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것은 에큐메니컬 운동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사회적 책무성이란 개인, 집단, 부서/구성회원 등에게 조직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와 소명과 합치되는 방법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그 책임을 추구하는 뜻이다.

2. 외부동역관계의 원칙(Principles of Partnership)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구성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교회 간, 교단 간, 기독교단체 간, 전문기독교봉사단체 간 등이 하나의 사회선교연합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 구성 요소간

의 동역관계의 원칙이 정립될 때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는 사회선교사역의 신학적 패러다임으로 그 성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동역관계(partnership)는 우리 조직의 구성요소들(교회·단체)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가톨릭, 불교, 정부, 시민사회, 기독교 NGOs, 국제기독교기구들과의 사회선교(봉사)차원에서의 동역관계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2006년 7월에 유엔기관들, CARE, 옥스팜(Oxfam), 월드비전, 국제 적십자 등의 인도주의 실천 국제 NGO들이 모여 외부동역관계의 원칙들을 협의한 결과로 다음 다섯 가지 원칙들이 채택되었다.

첫째, 평등성의 원칙; 둘째, 투명성의 원칙; 셋째, 결과를 염두에 두는 접근 방식의 원칙; 넷째, 책임성의 원칙; 다섯째, 보완성의 원칙이 채택되었다. 이상과 같은 동역관계의 원칙들은 한국교회사회봉사단이 책임성, 책무성을 지닌 효율적, 생산적 사회선교의 선도적 기관으로 국내·외 선교의 현장에서 활동을 전개할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VI. 나아가는 말: 아이티 지진구호협력사역 모색

1. ‘한국교회아이티연합’의 주최로 ‘아이티 지진피해’ 지원 한국교회협력사역의 원칙과 방법을 모색하는 주제와 연관된 소주제로 제시된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를 중심으로 긴 원고를 축소하여 주어진 시간(20분)에 맞도록 고찰하였다. ‘한국교회아이티연합’은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의 사회선교활동의 연합국제사회봉사를 중심으로 ‘과제집단(Task Force Team: TFT)’으로 구성되어 일시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아이티 지진구호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본원칙과 방법을 기초 원리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의 성경적, 봉사신학적, 교회사적, 기본개념들과 원리, 실천원칙들을 아이티 지진피해, 지원을 위한 한국교회의 전략수립에 직접 적용하지 않고 고려되어야 할 기본원칙과 원리들을 고찰하였다.

아이티 지진피해 지원을 위한 한국교회의 협력사역의 원칙은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라는 가시적인 실체가 한국교회의 집합교회적(집합주의) 단위로 국내·외 문제에 접근할 때 극복하여야 할 개교회주의의 특성을 고찰하면서 효율적인 선교를 진행시키기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원리를 한국교회에 적용하려고 할 때 부닥치게 되는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향에 대해 간단히 고찰했다. 아이티 지진재단에 대처하여 교회국제사회선교를 펼치려는 한국교회의 연합·일치 운동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떤 구성요원들이 TFT에 참여하고 각 참여성원(단체)은 아이티 지진구호협력사역의 전체단계에서 각 구성요원이 지니고 있는 전문적 사역능력에 따라 어떻게 동역관계를 설정하고 사역을 분담하여 효율적인 국제구호사역의 선교적 결과를 창출할 것인지를 감안하면서 사역과제집단이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차원의 지진재난에 대처할 긴급구호사업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긴급구호 전문가의 개입이 절대로 필요하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 구성단체나 집단 또는 개인들 중에는 이런 측면의 사역을 지닌 ‘전문자원’들이 어느 조직에 속하여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기독교국제구호·개발기관으로 긴급구호사역체제를 갖춘 단체들(예: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등)이 기독교 긴급구호사역을 함께 수행하는 TFT의 성원으로 활동해야 하며, 에큐메니컬적 교회사역을 위한 교회일치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물론 아이티와 같은 국제긴급구호를 요하는 사회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나 기독교계가 어느 정도의 긴급구호자원(기금과 구호현물)을 동원(모금)하여 특정한 구호·복구 사업에 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와 통계를 작성하는 일은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구호사역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본다. 지구촌적 자연재난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며, 이것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긴급구호사역시스템(체제)을 구축하여 유지해 나가는 과제는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 수행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 구성교단, 교회, 단체의 신학 노선이 다양하고 때로는 서로 상치되어 갈등을 일으켜 국내·외 사회선교 수행에 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측면에서 공헌할 수 있는 전문적 성서신학자, 선교신학자들이 사전에 최소한도로 합의된 사회선교신학원칙을 정립하고 그 신학적 원칙에 부합되는 사회선교정책이나 방법을 설정하는 과제도 사전에 정립해 둘 필요가 있다. 본 강연의 내용(인쇄물) 안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제기와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원칙을 언급했다.

모금된 자원을 어떤 목적을 갖고 어느 단체 또는 누구를 통해서 구호사역을 집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 봉사신학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일 큰 계명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중요한 사랑의 대상은 “우리의 이웃”이고 그 이웃은 주로 가난한 이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눅 4:18-19, 마 25:31-46, 눅 10L25-37). 한국교회는 ‘가난한 이웃들’을 성경과 신학의 주제로 삼는데 침묵을 지켜왔고 대신 교회성장, 교회부흥, 기독교선교권의 확장 등에 온 정력을 쏟아 왔다.

누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아이티 이재민의 긴급구호, 복구를 위한 82억 원의 생명자원을 갖고 섬길 것인가의 복잡한 의논이 이번 선교사역으로 끝나고, 앞으로는 책임 있는 선교단체로 준비되어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즉시 구호선교기제(Mechanism)가 동원될 수 있는 체계(System)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이티지진구호협력사역의 모색은 ‘디아코니아’ 봉사 신학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일차적 관심은 고통 받는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사역이었다. 아이티 구호금의 일차적 목표는 재난으로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었다. 선교적·영적구원의 목표는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구호사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난한 이웃에게 전달될 때 그의 영혼의 구원도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본다(마 5:16).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마) 6:33”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말씀으로, 봉사사역으로 섬기는 그 ‘디아코니아’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현지(아이티) 선교사를 통해서 구호사역이 진행되던 한국교회나 기독교 NGO를 통해서 긴급구호가 진행되던지 간에, 먼저 고통 받는 아이티의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디아코니아’ 사역원칙에서 선교수행의 청지기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본 발제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한국교회의 영광이나 한국국민의 자량을 위한 구호선교사역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성경의 교훈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이티 지진구호의 한국교회 구호사역의 원칙은 먼저 ‘누가 재난에 희생이 된 아이티의 고통 받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예수님과 같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가?’의 질문과 그 답변에 따라서 신앙적으로 전문적으로 가장 잘 준비된 청지기를 선택하여 우리 한국교회의 아이티를 위한 구호사역의 주역을 맡기는 것이 최선의 선택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아이티에서 효율적으로 책임 있는 구호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독교국제구호·개발 기구와 협력하여 우리의 구호사역을 위탁하는 방법도 ‘에큐메니컬 디아코니아’를 수행하는 21세기의 세계화된 선교방법의 하나라고 본다.

누구와 그리고 어느 단체와 선교의 동역관계를 맺고 가난한 이웃을 돕느냐는 이러한 동역사역의 결과로 가난한 이웃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특히 그 변화들이 영적변화를 가져왔는지 책임 있는 평가적 질문과 답변을 얻어 구호사역에 동참한 관계된 모든 후원자에게 알려주는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구호선교 사역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믿는다.

주님의 성령이 ‘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한국교회아이티연합’에 임하시라, 이 사회선교기그들이 아이티를 비롯한 국내·외 가난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말씀과 봉사행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선교기관들을 택하시라 사회봉사능력의 기름을 부으시며, 이들을 보내시라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가난한 이웃들과 그들의 환경이 변화를 받아 모든 우리의 이웃들이 살기 좋은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 곧 2010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본 20분 강의를 마친다.

-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존 스타트(박영호 역, 1985).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전재옥 외 3일(번역·편저, 1988). 에큐메닉스, 서울: 성광문화사
이삼열(엮음, 1992).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박영호(2001). 기독교사회복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김장태(1997). 기독교사회복지학, 서울: 진흥

최무열(1999).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서울: 나눔의 집

성백결(2008). 서해에서 떠오르는 희망, 서울: 한국교회봉사단

박종삼(2000). 교회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 복지

박종삼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서울: 학지사

Stott, J.(2003).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Mumbai: GLS

Irvine, Graeme(1996). Best Things in the Worst Times, Wilsonville, Oregon: Book Partners, Inc.

World Vision(2008, 2009) Partnership Update 9-2, 11-3, Seoul, World Vision Korea

아이티의 역사와 현실

이 승 열 목사(예장총회사회봉사부 총무, 한국교회아이티연합 공동서기)

1. 들어가는 말
2. 아이티의 역사적 이해
 - 2-1. 아이티의 개요
 - 2-2. 카리브해와 해적의 역사
 - 2-3. 아이티역사의 시작과 노예수입
 - 2-4. 지옥같은 노예생활 속에 감추어진 부두교
 - 2-5. 노예들의 반란과 노예제도의 폐지 그리고 독립
 - 2-6. 생도맹그의 설탕산업
 - 2-7. 흑인공화국의 독재자 크리스토프 앙리 1세
 - 2-8. 아이티의 근현대사
3.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지난 1월 12일 강도 7.0 의 지진이 발생한 아이티는 사망자 23만 명(30만 명 추산)과 전체 국민 900만 명 중 1/3인 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가옥 150만 채가 붕괴되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지진재해구호의 열정과 관심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유래가 없는 모금과 각 교단, 기독교단체, NGO, 언론기관들의 관심과 연합된 힘으로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재해구호의 접근과 신중함이 뒤따르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하고 성숙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한국개신교회 역사상 최초로 한 나라의 재해구호를 위하여 이처럼 바람직한 에큐메니칼적인 디아코니아의 조직이 생겨나고 세계교회와 연대하며 바람직한 재해구호와 섬김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도 역사적인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필자가 속한 교단의 아이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기록적이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더더욱 긴장감을 갖게 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만큼 아이티라는 나라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며 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고 쉽게 단언할 수도 없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진발생 초기에 나타난 극단적인 혼란과 무질서한 상황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성숙한 시민의식이나 질서는 아예 기대할 수도 없었으며 구호의 손길조차도 생존을 위하여 모든 윤리와 도덕 그리고 시민의식을 저버린채 빵을 든 여인의 손을 잇빨로 깨물고서라도 빼앗아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배고픈 한 남성의 모습이라든지, 옆에 사람의 가진 물건을 빼기 위해 대낮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여 빼앗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약탈꾼으로 변한 생존자들에게 선한 섬김의 손길마저도 움츠러들고 경계하며 신병위협을 느끼는 곳 아이티는 과연 어떠한 나라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한 곳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알려진 이 아이티의 본래적인 모습과 현실을 바르게 진단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이티의 비극적인 역사와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바람직한 재해구호와 도움도 어찌면 의미를 찾기 어렵게 될지도 모를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

대략적인 상식으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스페인, 프랑스, 미국의 식민지배통치를 받은 나라로서 세계최초의 흑인공화국이었던 아이티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재해구호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재해구호의 방향과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유의할 것인가? 재해구호를 빨리하고 끝내야 하는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야 옳은 것인가? 군대를 파견하고 땅을 먼저 많이 확보하고 기득권을 먼저 선점해야만 바람직하고 유리한 재해구호를 할 수 있으며 외교적으로 미래에 자국에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혹 교회적 입장에서는 교단적 선교사업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먼저 집중적으로 물질공세를 하고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과시도 하고 약속도 하고 크게 도울 수 있는 입장인 것을 밝혀야 하는가? 그래서 타교단, 단체, NGO 들과 서로 경쟁하며 정보를 빨리 얻어내고 발빠르게 움직이며 집이나 땅과 같은 부동산을 먼저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등등 많은 질문이 생겨나는 것이다.

현재 아이티에는 세계각국의 재해구호단체들, 국제적인 NGO 단체들, UN과 선진국들의 외교적 활동과 협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대 정부간의 협약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도시재건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어떤 이들의 말에 의하면 한마디로 요즘은 팽팽기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티의 현실상 재해구호사업의 파트너로서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협조해 줄 수 있는 인재나 단체나 교회 등의 세력이 너무나 미약하기에 믿고 맡기며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집중해서 구호사업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우리는 시중하게 역사적 이해를 바르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재해구호의 방향과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아이티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된 역사적 이해를 위한 연구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한 전문성 있는 논문이나 책자를 통해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양한 자료들을 편집하는 방법으로 대략적 구분과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과 함께 양해를 구하며 역사적 이해를 위한 장을 펼치고자 한다.

2. 아이티의 역사적 이해

2-1. 아이티의 개요

아이티의 현재 인구수는 900만 명이며, 국토면적은 10,951스퀘어 마일(27,797 평방킬로미터)로 미국의 매릴랜드 주보다 약간 작고 한반도의 1/7정도이다. 카리브 연해에 위치하고 있고 도미니카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섬나라이다. 바로 북쪽에는 쿠바가 있고 서쪽에는 자마이카가 있다. 뉴욕 J.F.Kennedy공항에서 3시간 40분이면 도착하며 공용어로는 불어와 크레올(Creole)어를 쓰는데 일부 지식층은 영어를 구사한다. 문맹률이 45%이고 실업률이 70%이며, 평균수명은 52세이다. 로마카톨릭이 국교이며 인구의 80%를 차지한다. 개신교는 16%, 부두교 등의 기타종교가 4%를 차지한다. 로마 카톨릭이라도 아프리카의 토착신앙 등의 요소가 도입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와는 1962년에 수교하였으며 북한과는 외교관계가 없다. 1988년 서울올림픽 IOC 정회원 참가국이기도 하며 주 도미니카공화국 한국대사관이 겸임하고 있다. 1인당 년 평균 국민소득이 450불(2006년도) 정도로서 하루 평균 1불이 안된다. 하루 1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세 나라 중의 하나이고 아메리카대륙에서는 가장 못사는 나라이다. 아이티의 수입원 중 75%는 외국의 원조, 25%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약 200만 명의 아이티 이민자들이 송금해오는 돈이다. 그러나 아이티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관계와 도움도 있었다. 즉 6.25한국전쟁시에 아이티는 우리나라에 3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지원한 것이다.

최근에는 계속되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으며 전기, 수도 사정이 형편없고 주요 도로 한둘 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포장도로이다. 수도인 포르토프랭스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고 현재 수도 인구는 2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난한 나라를 상징하는 진흙쿠키가 실제로 생산되고 있으며 이것을 먹는 가난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다.

1925년 아이티는 우거진 열대천국이어서 60%가 산악지대를 이루어 숲이 많았다. 그 이후 숲은 단지 2%만 사라져 그 지역은 비옥한 농토로 바뀌었다. 근래에 들어서는 침식이 산악지대 인근에 심해지는데다 벌목이 주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어 환경파괴가 심각해지기도 했다. 때문에 아이티의 삼림채벌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여 숲을 일구려는 지원이 있기도 했다.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아이티는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려 6,000 여 종 이상의 식물이 아이티에 살고 있으며 이 중 35%가 위기종이다. 새의 경우 220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21종이 멸종위기종이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높은 이유는 섬내에도 해발고도와 지형적 요인으로 소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2-2. 카리브해와 해적의 역사

아이티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카리브해에서 성행했던 해적들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리브해에서 활동하던 해적들의 이야기는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제목의 영화에도 잘 묘사되고 있는 바와 같이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2세기 동안에 걸쳐서 카리브해 근처에 있는 나라들과 바다에서는 유럽의 제국주의적인 여러 나라들이 신대륙에서의 지배와 영향력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서로 각축전을 벌이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가던 것과 함께 구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함께 만나면서 새로운 역사가 생겨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해적의 활동과 이야기를 기아와 질병, 각종 사고와 약탈과 살해와 배신이 끊이지 않는 해적의 어두운 본래 모습조차 현실적인 위협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낭만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모험적이기 때문이다. 모험만이 사람들에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발견과 개척 경이로움이 해적들의 모험담 속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해적은 스스로의 욕망을 스스로 실현하는 혁명성이 있었다. 신분의 귀천 혹은 재산의 유무를 막론하고 실력 있는 자는 선장이 될 수 있었고 재산은 공정하게 분배되었으며, 여자와 흑인도 능력을 인정받으면 일원으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았다. 세금이나 지배자의 학정에 시달리지 않았고 구세계의 질서를 따를 필요도 없었다. 이러한 해적들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주름잡던 카리브해의

신세계가 구세계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의 왕국들은 전쟁등의 유사시에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략선’¹⁾해적들의 해적행위를 눈감아줄 뿐만 아니라 사략면장을 남발하여 적극 장려하기 까지 했고 해적들도 정치적 무법지대 속에서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해적들의 황금시대도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종말을 고하게 된다. 그것은 결국 제국의 시대로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구세계의 질서가 재편 강화되면서 신세계에서 상대적인 자유를 누리던 이들이 동인도회사와 같은 여러 회사들을 앞세운 제국주의 수탈의 압력에 맞닥뜨리게 된 역사적 정황에서 너무나 자유로웠기에 결속력이 약했던 해적들은 와해되고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동인도회사를 비롯한 회사의 설립은 국가주도의 무역과 전쟁이 점차 조직화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었다. 조직적이고 충성스러운 제국의 함대가 사략선으로 활약했던 해적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고 국제사회도 무분별한 해적행위로 인한 외교문제를 좌시하지 않게 되자, 해적들이 누리던 무차별적인 자유는 발디딜 곳을 찾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2-3. 아이티역사의 시작과 노예수입

서인도 제도에 있는 아이티는 1492년 스페인에 점령되었다. 1492년 10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대륙의 발견의 첫 발자국을 남긴 곳이 현재 서인도제도라고 불리는 대안테일열도 중의 하나인 히스파니올라섬(현재 아이티섬)이다. 섬에 산이 많아서 원주민인 타이모와 아라와이 아이티(높은 산이라는 뜻)로 명명한 이곳의 원주민 수는 16세기 초에 130만 명에 달하던 것이 금광에서 행해진 강제노동과 학대, 그리고 질병이 원인이 되어 15년 만에 6만 명 미만으로 격감했다. 그후 스페인군대는 순박한 아이티원주민들은 모조리 살해하였다. 아이티 원주민들이 강제노동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판단이나 혹은 백인들만이 이 아름다운 섬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에서였다는 해석도 있다. 1503년, 원주민이 '엔코미엔다스(스페인 식민통치 노동제도)'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정한 스페인 정복자들은, 원주민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데려온 첫 번째 노예들을 이 섬에 내려놓았다. 흑인 노예들은 광산에서 이루어지는 고된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다. 1506년부터 사탕수수의 재배가 시작되었다. 그러자 1517년, 카를로스 1세는 15,000 명에 달하는 흑인 노예들의 수입을 허용했다. 종으로서

1) 해적들의 배는 사략선으로서 전쟁시에는 국가에 고용되고, 평화시에는 사략면장을 부여받아 왕국간의 약탈 경쟁에 이용되었다. 이 사략면장의 기원은 중세시대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략면장을 부여받은 선박은 왕국의 허가를 받았기에 성지를 순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교도의 선박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것이 합법적이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보복제도'를 통해서도 민사소송의 판결을 근거로 보복허가장을 받아 분쟁 상대국의 상선을 약탈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러한 면장이나 허가장은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받아, 사략선이 나포된 경우에도 승무원들은 '해적'이 아닌 '전시 포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주인인 스페인 주민을 따라 신세계로 건너온 스페인계 흑인들과 세네갈·앙골라에서 온 흑인 노예들이 서인도제도과 라틴아메리카의 낯선 땅에서 원주민을 대신하여 가혹한 노예생활을 시작했다. 그렇게, 1518년 카를로스 1세가 4,000여 명의 아프리카 노예를 스페인 식민지에 공급해도 좋다는 특허장을 발부한 이래 시작된 노예무역으로 아메리카의 흑인 인구는 해마다 8천여 명씩 증가하여 18세기 말에는 대서양을 건넌 흑인 노예의 수가 천만 명을 넘었다. 아프리카 족장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그들을 사냥해서 유럽의 노예상인들에게 팔아넘겼고, 유럽인들은 오로지 아프리카 부족들 사이에 일어난 폭력에서 노예들을 해방시켰다고 주장했다.

스페인인들은 얼마 안 있어 더 넓고 더 풍요로운 땅 남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 버리고 아이티 섬을 돌보지 않게 되자 17세기에는 영국과 프랑스인들이 이 섬에 와서 살게 되면서 1697년에는 그 서쪽 절반이 프랑스령이 된 것이다. 1629년, 한 무리의 프랑스인들이 아이티 북쪽 토르튀섬에 나타났다. 아메리카 대륙 연안을 휩쓸던 해적, 들소 사냥꾼, 카리브해를 지나는 스페인 선박들을 상대로 약탈을 일삼던 자들이었다. 스페인과 싸움을 벌이며 마침내 아이티에 입성한 프랑스인은 카카오, 목화, 인디고 따위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아이티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이 증가하자 루이 14세는 1665년 베르트랑 도주몽을 총독으로 임명했다. 1년 앞선 1664년부터는 콜베르가 설립한 인도회사가 이미 아이티에 흑인 노예를 공급하고 있었다. 초창기에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인도회사는 가난한 백인들까지 데려왔으며 그들은 36개월 동안 흑인과 똑같이 천대를 받았다. 이들은 '지원자'라고 불렸다. 1697년 리스위크 협정이 체결되자 스페인은 아이티섬의 3분의 1을 프랑스에 넘겨주게 되었고, 그 후 이곳은 생도맹그(St-Domingue)라 명명되었다.

그 당시에 이미 설탕공장들이 가동되고 있었다. 노예인력이 투입되면서 설탕의 생산체계에 상당한 전환이 일어났다. 18세기에 들어서자 흑인 매매는 더욱 활발해져서, 당시 표현대로 총체적인 '검둥이 기근'이 몰아닥치기 전까지 극에 달해 있었다. 생도맹그는 잡다한 아프리카 흑인 민족들을 두루 찾아볼 수 있는 인종전시장과 같았다. 그러나 가장 큰 세 집단-수단족, 기니족, 반투족-가운데 하나인 나이지리아의 요루비족과 다호메이의 풍족의 영향력이 특히 지배적이었다. 그들은 노예들이 섬에 이식해 놓은 온갖 문화와 풍속을 통합하는 기반을 형성했다. 17세기부터 특히 18세기 전반까지, 다호메이 왕가는 아프리카의 서해 연안에 있는 소왕국들을 통치했다. 다호메이 왕가는 소왕국들에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 흑인매매상에게 팔았는데, 이것이 그들 경제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다. 이렇게 팔린 노예들 중에는 마법사나 죄인들도 있었고 부두교의 고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것들이 아프리카의 문화를 잊게 만드는 데 한 몫을 했다. 우선 대서양을 횡단하는 동안 노예선안에서 노예들은 들쭉날쭉 사슬로 묶여졌고, 정기적으로 구타를 당했으며,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반항할 힘조차 없었다. 그렇게 해서 섬에 도착하면, 그들은 식민지 경영자들이 그리스신화(큐피드, 제우스 등등)나 로마 역사(브루투스, 폼페이우스 등등)등에서 마음대로 따 붙여 놓은 새 이름으로 불렸다. 주인들은 노예들을 농장이나 아틀리에라고 부르는 노동집단, 오두막집에 배치할 때 계획적으로 여러 민족들을 뒤섞어 놓았다. 결과적으로 노예들은 자신의 가족과 혈통, 조상들에 대한 기억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주인이 지켜볼 때를 제외하고는 노예들끼리 모임이나 집회를 가질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 인간성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한 복종상태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허용된 유일한 종교는 흑인매매와 노예제도를 정당화시켜 준 카톨릭뿐이었다. 이미 1635년에 루이 13세는, 흑인매매를 위해 아메리카 대륙의 섬에 설립된 회사는 노예들을 카톨릭으로 교육시키고 세례를 받게 해야 한다고 고시했다. 1640년에서 1647년까지 생도맹그에서 근무했던 초기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였던 장밥티스트 뒤테르트르 신부는, 교역의 근본 목적은 흑인을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만 카톨릭은 그들을 이교신앙에서 구해냈다는 논리로 노예무역을 정당화했다.

특히 이러한 로만 카톨릭의 주장은, 프랑스에서 콜베르의 주장으로 만들어져 1685년 루이 14세가 공포한 흑인법전(Code Noir)은 노예제도를 공식적으로 정당화할 때에 교회가 맡을 역할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흑인법전 제2조는 "우리 섬에 있는 모든 노예들은 로마 교황 카톨릭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교육받을 것이다."라고 규정해 놓았으며, 제3조는 "카톨릭 이외의 모든 종교행위를 금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종교의식들이 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밤낮을 불문하고 노예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노예들의 모든 활동(노동, 여가, 가족)을 규제하고 노예들을 동산으로 규정하는 등 그들에게서 모든 권리를 박탈했다. 흑인법전에 있는 60여개의 조항 중 노예들이 받는 학대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인 조항은 단 하나도 없었다. 법전에 언급된 휴식이나 음식, 종교 등에 대한 조항은, 사실 탈출예방을 위한 통제수단을 확고히 하고 노예소유주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법전에 따르면 주인이 노예를 나쁜 일에 악용했을 때에 주인은 가혹한 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민법사항이든 형법사항이든 간에, 노예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프랑스는 아이티에 50만 명의 흑인노예들을 수입하여 사탕수수과 커피농장을 경영하여 가장 성공한 열대식민지로서 성공하여 세계에서 유수한 부자나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 흑인노예들이 아프리카로부터 전세계에 수출되었나? 지중해 지역과 아시아로 향한 노예무역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의 자료들이 남아 있어서 개략적으로나마 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이집트의 노예무역에 대해서는 “카이로에서 장이 서는 시기에 수천 명의 흑인 노예가 매매된다”는 프랑스 여행자 피농(Pinon)의 1570년대 기록, “매년 캐리반이 많은 흑인 노예들을 이집트로 들여오며 여기에서 오토만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재수출된다”는 독일 여행자 카이헬(Keichel)의 1588년 기록, “매년 이집트에 3000~4000명의 노예들이 유입되며, 카이로 시장에서 하루에 800 내지 1000명의 노예들을 볼 수 있다”는 에스파냐-벨기에 여행자 곤잘레스(Gonzales)의 1665~6년 기록 등이 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카이로가 중요한 노예무역 거점이며 이곳에 많은 흑인 노예들이 들어왔다가 주변 지역으로 재수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집트 노예무역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만으로 정확한 수치를 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수준은 파악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오스틴의 추산에 의하면 1400~1900년 기간 동안 이집트 지역으로 향한 노예무역의 규모는 약 160만 명 수준이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북부 아프리카와 동부 아프리카 각 지역의 노예무역 관련 자료를 모으고 이를 분석한 다음 거래된 노예 수치들을 구했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사하라 사막을 넘어 모로코, 이집트 등지로 송출된 노예는 모두 940만 명,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 반도로, 또 인도양을 건너 서남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송출된 노예는 모두 500만 명이며, 양자를 합치면 144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가 된다. 참고로 대서양 노예무역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송출된 아프리카인들의 수는 아프리카 해안을 출발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할 때 1100만 명,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할 때 950만 명이라는 것이 교과서적인 정설이다.

2-4. 지옥같은 노예생활 속에 감추어진 부두교

신세계에서 실시된 노예제도는 노예들을 가사노동에만 투입시켰던 아프리카의 노예제도와 완전히 달랐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노예가 된 다호메이 왕국의 노예의 경우는 소유주와 혈연관계가 없는 이방인이지만, 주인 가족의 일원과 마찬가지로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일단 국제시장에 팔리고 나면 그는 상품으로 전락했다. 사람들은 최대한 이윤을 얻어내기 위해 노예의 기운이 다할 때까지 가혹하게 혹사시켰다. 생도맹그로 팔려 온 노예들은 그곳에서 평균 7년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주인들은 이 소멸되기 쉬운 노동력을 흑인 매매시장을 통해 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노예들은 노예상인이나 식민지 경영인을 식인종이라고 여기거나 자신들을 아프리카

에서 강제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마법사들보다 더 영력이 강한 마법사들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노예들은 자살을 하면 백인 주인들에게 육체만을 남겨 준 채 고향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노예들이 어떻게 작업장이나 농장에서 요구된 혹독한 생활환경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종교의식들을 금지당했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카톨릭 신앙활동을 구실로 백인들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 이제 노예들은 성자숭배, 각종 성사, 성령 발현, 그리고 다양한 카톨릭 대축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아프리카 종교에 보호막을 칠 수 있었다. 선교사와 행정관은 북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시작되는 '검둥이들의 춤과 집회'를 끊임없이 비난했다. 이런 집회가 반란과 항거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규칙과 법령을 마련해 흑인들의 의식과 집회를 막았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부두교가 카톨릭 의식속에 교묘히 위장되어 있었던 탓이다. 처음에는 카톨릭을 향한 노예들의 종교적 열정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던 주인들도 마침내는 그것이 결코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예들이 기독교 의식에 심취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일단 부두교의 역사는 아이티의 역사와 같은 궤도를 달린다. 하지만 기원은 서아프리카, 즉 지금의 토고-가나-베냉-나이지리아 쪽이다. 원래는 민족, 마을, 씨족, 혈통 등이 사회의 기반이 되고, 각 집단은 수호신이자 조상신인 '보두' 혹은 '보둔' 을 갖고 있었다. 죽은 자를 숭배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원에서는 보둔에게 소나 양, 닭 같은 제물을 바치면서 북치고 춤추며 의식을 했다.

부두(Voodoo)교의 중심은 정령에 대한 숭배인데 정령인 르와(Lwa 혹은 Loa)는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고, 사회생활과 우주의 여러 분야를 분류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이다. 가정의 수호자이자 르와들의 우두머리 '레그바', 수확의 르와인 '자카', 죽음의 르와인 '제대', 제대의 우두머리 '바롱 삼디', 부와 재산의 '담발라' 등등. 부두교의 사제는 제사장에 가까운 '운강', '맘보', 혹은 마술사에 가까운 '보코' 라 불린다. 하지만 르와는 신과 인간의 매개자 역할을 한다. 부두교는 일신교이다. 부두교 사원 중앙에는 의식을 할 수 있는 회랑이 있고, 거기서 르와에게 바치는 제물을 놓고 바닥에 상징적인 그림(제물과 그림은 르와에 따라 달라집니다)을 그리고 북을 치며 의식을 거행한다. 의식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3개 있다.

- 1) 다호메이 출신 르와를 숭배하는 '라다'
- 2) 반투 출신의 르와를 숭배하는 '콩고'
- 3) 생도맹그 출신 르와를 숭배하는 '페트로'

라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인데, 다호메이쪽 르와는 기니에서 왔다고 하며, '좋은 르와'라 한다. 활기가 넘치고, 제물로 개(犬)를 좋아한다. 페트로쪽 르와는(크레올 르와라 불림)매정하고 잔혹한 자들로 마술에 사용된다. 르와들에겐 나름대로의 위계질서가 있지만(출신 지역에 따라 위계질서가 다르다), 이원론적인 선악 개념은 별로 없다. 매정하고 잔인하다는 크레올 르와도 잘 모셔 주면 그만큼 신자들에게 잘해 준다고 한다.

의식을 하다가 '신들림' 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르와가 그 신자를 선택한 것으로, 이것도 르와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레그바는 난폭함과 격렬함, 담발라의 경우는 뱀의 움직임을 흉내낸다고 한다. 이외에 죽은 자를 숭배하는 의식도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부두교 신자였을 경우 정령과 인간을 분리하는 의식을 한다. 여기서 죽은 자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나 손톱 조각들을 항아리에 담는다. 이는 죽은 자의 영혼이 나쁜 목적에 사용되지 않기 위함인데, 이걸 안했을 경우 '살아있는 자' 로서 간주한다. 분리의식이 끝나면 초상집에 모여 하루 밤을 새고, '망제 레모' 라는, 죽은 자에게 바치는 식사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1804년 프랑스에서 아이티가 독립할 때에 부두교 사제와 함께 아이티를 부두(Voodoo)신에게 바친다고 선언했다.

2-5. 노예들의 반란과 노예제도의 폐지 그리고 독립

노예들이 어떻게 작업장이나 농장에서 요구된 혹독한 생활환경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종교의식들을 금지당했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카톨릭 신앙활동을 구실로 백인들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 이제 노예들은 성자숭배, 각종 성사, 성령 발현, 그리고 다양한 카톨릭 대축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아프리카 종교에 보호막을 칠 수 있었다. 노예들이 보여 준 저항의 두 번째 형태는 그들만의 장소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그곳은 도망친 노예들의 피난처가 될 뿐만 아니라 노예제도 철폐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주인들이 뒤쫓아올 수 없는 지역으로 달아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었다. 16세기에 접어들자 수많은 노예들이 농장과 작업장 밖으로 달아났다. 행정당국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예방책을 강구했지만, 수입 노예의 폭증에 따라 탈주사건 발생률은 치명적인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끓주림과 학대, 자유에 대한 갈망에 떠밀려 도망친 노예들은 '마룬(Maroon)'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바호루코 산맥(오늘날 도미니카 공화국의 남서쪽)으로 가 그곳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경제, 정치, 문화 공동체를 결성했다. 농장에서 도망쳐 나온 마룬들은 농기구와 그가 돌보던 말이나 노새를 가져왔다. 마룬들이 산에서 짓는 농사라는 것이 변변치 못했기 때문에 작업장이나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과 연락망을 만들지 않았다면 연명하기가 몹시 어려웠을

것이다. 마룬들은 가끔 약탈을 하러 마을로 내려왔다. 그러다가 잡히면 잔인한 벌(귀 자르기, 목에 쇠고리 달리, 불로 지지기 등)을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탈주자가 생겼다. 탈주지에는 동화되지 않은 노예인 '보살(bossale)'과 반대로 이제 막 섬에 도착한 노예의 수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식민지 경영자들의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려는 아프리카적인 조직원칙이 쉽게 수립될 수 있었다. 춤, 노래, 신화, 의식, 치료요법들뿐만 아니라, 크레올어, 아프리카의 친족구조에 기반한 새가족제도의 개발 등이 새로운 사회체제 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부두교는 출신 민족과 출신 농장이 저마다 다른 노예들 사이에 단단한 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었다. 이 공동체에 합류하기에 앞서, 새로 온 탈주노예는 다시 붙잡힌다고 해도 절대로 그의 동료들을 고발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해야 했는데, 이러한 의식은 부두교의 제사장이기도 한 마을의 수장 앞에서 이루어졌다.

아프리카 전통은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복원되었는데, 여기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노예제도의 폐지였다. 그래서 탈주노예들은 부적을 만드는 데 능하며 독초와 독약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는 부두교의 사제들에게 마술과 주술을 배웠다.

1750년부터 1791년까지 생도맹그의 농장주들은 독살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부두교의 정령들은 식민지 경찰에 대항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수상한 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아프리카의 모든 주술행위에 대해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두교에 관한 무서운 미신들은 마침내 노예제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데 성공했다. '주술'을 발휘하는 탁월한 능력 덕분에 유명해진 탈주노예 지도자들은 식민지 정치무대에 나타나 백인들의 멸망과 노예들의 해방을 예언했다. 탈주노예 지도자들 가운데 몇몇은 진짜 정치인이 되어 독립투쟁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프랑수아 마강달은 1757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약 뿐 아니라 '경호인'이란 부적을 만들어 반란노예들에게 배포하여, 식민지 경영자와 행정관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이 부적은 무기로 공격을 당하더라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해주며, 백인들에게 가질 수 있는 모든 공포를 제거해 준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그 후 '마강달'이란 말은 생도맹그에서 만들어지는 부적이나 독약을 통칭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18세기 말, 식민지에는 40내지 50만 명의 노예들과 4만 명의 백인, 그리고 노예신분에서 해방된 2만 5,000명의 흑인과 혼혈아들이 있었다. 당시 생도맹그는 가장 부유한 프랑스 식민지로서, 프랑스 무역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매년 500척의 상선들이 본국의 항구로 설탕, 커피, 인디고, 구리, 목재 따위를 실어 날랐고, 1789년에는 이미 793개의 설탕공장이

가동되고 있었다. 따라서 프랑스 본국은 생도맹그를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그곳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백인들, 다시 말해 '프티 블랑'(petit Blanc, 도시의 중업원과 근로자)과 '그랑 블랑'(grand Blanc, 농장주, 관리, 상인)은 오로지 사리사욕에만 눈이 멀어 있었다. 그들의 일상은 만찬석상과 무도회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으며, 혼혈인이기 일쑤인 관리자의 정부를 둘러싸고 하찮은 언쟁이 난무할 뿐이었다. 술집과 카바레와 극장은 언제나 만원사례였다.

18세기 중엽, 프리메이슨 지부들이 생도맹그에 설치되면서 관용과 분리를 부르짖는 사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해방노예들(물론 흑인도 포함되어 있었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식민지 경영자들이 프리메이슨 이념의 보급을 차단하려 했음은 당연한 시도였다. 게다가 식민지와 프랑스의 관계는 '독점무역법'이라는 굴레에 고착되어 있었다. 이 법은 식민지에서 생산된 상품은 본국이 결정한 가격아래 오로지 본국에만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 이제 생도맹그 식민지 경영자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반항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부두교의식과 '마캉달'을 금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지만, 프랑스 대혁명과 '인권 선언'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흐름에서 노예들을 완전히 격리해 놓을 수는 없었다. 노예들은 이제 노예제도에 마지막 공격을 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닥쳐왔다는 것을 알았다. 마룬들의 새 지도자는 부크망뒤티였다. 여러 군데 작업장의 노예들과 친분을 맺고 있던 뒤티는 작업반장이자 마부였으며 부두교의 제사장이기도 했다. 뒤티가 거사를 시작한 곳은 마캉달의 거주지였던 르노르망 드메지 농장이었다. 그는 마룬 거주지와 식민지 북부에 위치한 작업장과 농장의 모든 노예들에게 폭동명령을 내렸다. 식민지 경영자들이나 교구신부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봉기는 극비리에 추진되었던 것 같다. 첫 번째 회합은 마룬 거주지의 지도자들이 모여 진행했고, 두 번째 회합은 1791년 8월 14일 밤 뒤티가 좌중을 이끈 부두교 의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허구와 사실이 뒤섞인 이야기는 이렇게 전한다. 부아카이망이라 불린 이 의식에 모인 노예들은 식민지 경영자의 지배 아래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노라고 맹세한 성스러운 현장에 조인했고, 부크망이 크레올어로 아프리카 선조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을 걸고 복수할 것과 백인들의 신을 믿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동안, 참석자들은 제물로 바친 검은 돼지의 피를 나누어 마셨다. 마침내 8월 22일 봉기가 시작되었다.

폭동을 일으킨 노예들은 두 달 동안 식민지 전역을 공포에 빠뜨렸다. 200개의 설탕농장과 1,800개의 커피 농장이 불에 타 없어졌으며 수천여 명의 백인이 죽음을 당했다. 뒤티도 매복중에 숨졌다. 흑인의 새 지도자 중에는 아라다 왕의 손자이며 섬 북쪽의 브레다 거주지에서 태어난

투생 루베르튀르가 있었다. 뒤티와 마찬가지로 마부 출신인 그는 읽고 쓸 줄 알았다. 그는 흑인을 해방해 줄 새 스파르타쿠스가 생도맹그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레이날 신부의 <두 인도의 역사>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다. 사실, 루베르튀르는 1791년 8월 22일부터 흑인들의 반란을 이끈 지도자들인 뒤티, 비아수, 자노, 그리고 자신이 비서로서 모신적이 있는 장 프랑수아와 알고 지냈다. 점차 그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혼혈인뿐 아니라 백인 식민지 경영자에게도 권위를 가지기 시작했다. 용병술에 뛰어났던 루베르튀르는 500명으로 구성된 자신의 군대를 조직하여, 섬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던 스페인인과 동맹을 맺었다가 흑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다시 그들과 결별했다. 이어서 그는 루이 16세가 노예제도의 폐지를 원한다고 판단하고 왕당파 백인과 동맹을 맺었다. 그의 군대는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해 병사의 수가 5,0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1793년 8월 29일, 파리 의회의 전 변호사이자 혁명지지 인사로 이름을 날리던 레제 펠리시테 송토낙스가, 전 세계의 노예제도 폐지를 선언했다. 프랑스의 국민의회가 식민지의 정국을 진정시키기 위해 프랑스 정부를 대표해 다른 두 명과 함께 그를 파견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마침내 1791년 8월의 흑인 봉기는 승리를 인정받았다.

그후 투생은 프랑스가 대혁명의 격동 속에 휘말린 틈을 타 생도맹그섬을 점령하려는 영국인과 전쟁을 치렀다. 식민지 경영자들은 노예제도의 부활을 바라는 영국과 동맹을 맺었다. 투생은 자신의 군대를 앞세워 섬에 진주한 영국인을 모두 몰아냈으며, 1794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프랑스 정부로부터 사단장으로 임명되었다. 흑인의 신임을 얻은 그는, 노예제도폐지를 받아들인 식민지 경영자들과 협력하여 농장의 규율과 작업조직을 재구성했다. 그의 목표와 전략은 흑인의 자유 수호였다.

1801년, 투생은 생도맹그섬의 스페인령마저 정복해 그곳에서도 노예제도 폐지를 선언할 수 있었다. 이후 투생은 프랑스에 대한 생도맹그의 자치권을 명시한 헌법을 공포하고 스스로 섬의 종신 총독이 되었다. 1802년, 나폴레옹은 식민지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 생도맹그섬으로 군대를 보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비록 투생은 프랑스로 끌려와 주 요새의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미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든든히 다져놓았던 것이다. 새로운 흑인 장군과 혼혈인 장군들-데살린, 알렉상드르페티옹, 앙리 크리스토프-이 이끈 전쟁에서 해방노예와 연대한 노예들은 나폴레옹 군대를 격파했다. 그리고 1804년 1월 1일 마침내 독립이 선포되고 섬은 옛 이름 아이티를 되찾았다.

2-6. 생도맹그의 설탕산업

18세기 후반에 생도맹그(오늘날의 아이티)의 설탕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당시 대서양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워낙 압도적으로 설탕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간의 경쟁에서 쟁탈의 요체가 되었던 것이다. 이 일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중상주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프랑스 식민지였던 생도맹그가 프랑스 이외의 나라들과 무역을 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설탕무역으로 벌어들인 국부의 상당부분이 영국 및 미국에게 유출될 것이므로 무역을 독점하여 프랑스의 금과 은의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금과 은의 양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몇몇 강대국들 간에 귀금속의 보유량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아메리카 독립전쟁 당시에 프랑스가 미국을 지원하여 영국에 맞서 싸웠던 것도 '중상주의'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생도맹그의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프랑스 정부의 방침에 순순히 따랐더라면 별 일이 없었을 것이지만, 현지의 농장주들은 정부의 간섭을 마땅치 않게 여겼고 영국 및 미국과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를 원했다. 결국 미국의 독립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참정권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 과정에서 본국이 줄 수 있는 것과 식민지인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부유한 몰라토²⁾ 및 자유흑인들의 참정권 문제였다.

1790년 3월 8일에 본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조건하에 모든 사람들(all persons)에게 투표권이 있다는 방침을 통보해주었는데, person에 몰라토와 자유흑인들이 포함되는지, 만일 그렇다면 노예들도 포함되는 것인지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프랑스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립이 워낙 첨예해서 결의를 해 놓고서도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로 넘어갔다고 한다. 당시 산업혁명으로 면직물의 대량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영국에게는 최대의 설탕식민지인 생도맹그가 영국산 면직물을 소비해 줄 구매력있는 시장으로 여겨졌을 것이고 '박리다매'라는 면직물 업계의 속성상 노예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면직물사업에 유리했을 것이다. 프랑스의 중상주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영국

2) 카리브해 지역은 세계 각지에서 유입된 다양한 인종으로 형성된 사회이다. 신대륙 정복 이후 서구를 떠나 온 스페인인, 프랑스인, 영국인, 네덜란드인, 식민시대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의 이동을 따라서 수입된 아프리카 흑인노예, 19세기 노예해방 이후 아시아에서 유입된 중국인과 인도인 등이 기본구도를 형성하고 여기에 인종간의 혼혈이 이루어짐으로써 흑색에서 백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조를 보이는 피부색과 골격과 용모를 지닌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몰라토(mulatto)는 백인과 흑인의 혼혈혈통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1/2백인을 말하며, 콰드룬(quadroon)은 1/4 백인, 옥토룬(octroon)은 1/8 백인, 머스티(mustee)는 1/16 백인을 뜻한다.

면직물업계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식민지가 영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을 하는 것은 프랑스의 해상브루주아(maritime bourgeois)가 용납하지 못했던 것이다.

생도맹그의 분리독립파(Patriot)는 본국에서 파견된 총독을 타도하기 위해서 백인 소시민 (= 이들을 농장주인 빅화이트와 구별하여 스몰화이트라고 불렀다.)들을 선동해야만 했는데,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부유한 몰라토 및 자유흑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했다. 빅화이트는 스몰화이트로 구성된 민병대를 조직하여 총독의 권력에 대항했으므로 스몰화이트에게 당근을 던져주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래는 '백인농장주 → 부유한 몰라토 및 자유흑인 농장주 → 가난한 백인 → 흑인노예'의 순서로 구성된 식민지 내의 서열을 바꾸어 '빅화이트 → 스몰화이트 → 모든 흑인'의 순으로 재배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부유한 몰라토 및 자유흑인들은 분리독립파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무력대결의 와중에서 스몰화이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흑인노예를 해방하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현실은 이 설명처럼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고 반란을 일으켰던 흑인장군들이 스페인 편에 붙기도 하고 일부는 영국편에 붙기도 했으며 프랑스 본국의 노예제도에 대한 태도변화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등 변화가 심했으며 몰라토가 지배하고 있던 남부지방은 서부 및 북부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프랑스와 영국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영국이 해상을 장악하자 프랑스는 설탕식민지와 연락이 끊어졌다. 이 상태에서 분리독립파는 영국에 투항해버렸고 프랑스는 최대 설탕식민지를 상실해 버렸던 것이다. 잃은 것을 되찾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며 해군의 열세를 딛고 섬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예들의 힘을 빌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1794년 2월 4일에 프랑스공화국은 결국 노예해방령을 발표했다. 빅화이트와 스몰화이트가 힘을 합해서 흑인들을 억압하자 흑인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백인 농장주들이 영국에 투항해버리자 스페인측에 협력하며 저항을 계속했는데, 1794년에 본국이 노예해방령을 발표하자 다시 프랑스공화국에 충성을 바치는 것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투쌍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가 흑인지도자로 떠올랐고 영국군을 몰아내는 등 프랑스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외무역에 관해서만큼은 영국 및 미국과의 무역에 본국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투쌍은 노예해방을 고수하는 한편 백인농장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에도 충실했었다. 나폴레옹의 장모(=조세핀의 모친)가 생도맹그에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투쌍은 그녀의 파괴된 농장을 무료로 복구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투쟁은 프랑스로부터 분리독립을 하라고 꼬드키는 영국의 유혹을 물리치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듯 했으나, 1801년에 헌법을 개정하고 자신을 종신총독으로 임명했는데 헌법에는 프랑스 본국에서 파견된 관리에 대해서는 단 한줄의 언급도 들어있지 않았으므로 본국에서는 의심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다. 나폴레옹은 르클레르를 파견하여 생도맹그를 정복하려고 했고 양측의 군사력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답보상태를 보였으나 결국 투쟁이 양보하여 노예제도를 부활시키지 말고, 흑인장군들이 계급과 직위를 현재상태 그대로 유지하며 자신은 산 도밍고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은퇴하여 부관들을 거느리고 살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고 프랑스에 항복했다. 말하자면 이름뿐인 항복이었던 것이다. 항복이라고는 하지만 영국이 해군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영국과의 무역은 계속될 것이고 프랑스로서는 얻는 것이 없는 일이었다. 나폴레옹은 망명 농장주들 및 해상부르주아의 영향력에 좌우되어 노예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르클레르는 투쟁을 체포하여 프랑스로 압송했고 노예제도 부활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지만 많은 흑인장군들은 본국의 의도를 모른채 갈팡질팡했다. 투쟁의 부하 장군인 크리스토프나 데살린느 같은 자들도 이때는 르클레르에게 협조하여 반란군을 소탕하고 있었던 것이다.

2-7. 흑인공화국의 독재자 크리스토프 앙리 1세

몇년 동안 계속된 격렬한 싸움 끝에 "없을 것은 없고 얻을 것은 자유다" 라는 공산주의 구호처럼 흑인 노예들은 용감하게 싸워 끝까지 남아있던 프랑스인들을 본국으로 쫓아 버리고 이 나라에서 완전한 지배권을 획득하였다. 이때에 이 흑인폭동을 지도한 사람이 바로 앙리 크리스토프였다. 크리스토프는 1767년 양친모두 100% 흑인 노예의 아들로 산타.깃섬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아이티에 건너가 술집사환, 점시닦기등을 하였는데 키가 크고 강한 체력과 영리한 두뇌를 가진 그는 언제까지나 그러한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야심을 키워 왔다. 그러한 시기에 흑인 폭동이 일어났다. 크리스토프는 즉시 폭동 대열에 뛰어들었다. 27세의 한창 젊은이 청년은 천부의 재능으로 반란군의 장군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거듭되는 전투에서 승리를 거듭하여 마침내 프랑스를 몰아내고 완전한 해방을 획득 하였다. 그러나 흑인 해방이 말과 같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

영국의 사학자 하베는 그의 저서 "프랑스군의 구축과 크리스토프의 죽음에 이르는 사이의 아이티국 점묘"에 의하면 프랑스는 그렇게 호락호락 그 땅을 내어 준 것은 아니었다. 당시 프랑스의 실권자였던 나폴레옹은 노예 따위의 폭동으로 위대한 프랑스가 가장 노란자위인 식민지를 상실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하여 1802년 루크레르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80척의 군선과 22,000명의 정병을 파견하여 아이티 탈환 작전을 시도했다. 루크레르장군은 사랑하는 아내 보리-느.보나바르트를 동반했다. 보리-느는 나폴레옹의 누이다. 사람들은 노예를 상대로 본격적인 전쟁을 할 것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대포 몇 방 쏘면 혼비백산 손을 들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예상과는 정 반대로 나타났다. 3년 동안의 악전고투 끝에 프랑스군 5만이 전사하고 루크레르장군도 황열병으로 목숨을 잃고 보리-느는 진저리를 치며 본국으로 돌아갔다.

전 유럽을 석권한 나폴레옹군대도 일찌기 아이티에서는 패전의 경험을 맛보아야만 했다. 1806년 크리스토프는 드디어 100% 흑인의 나라의 새로운 독재자가 되어 1812년에는 국왕이 되어 프랑스의 본을 흉내 내어 '앙리一世' 라고 칭했다. 그런데 폭군으로는 중국의 주왕이나 진시황을 꼽으나 크리스토프만한 폭군도 드물 것이다. 그보다 125년 후에 나타난 히틀러, 무쏘리니, 스탈린 등도 이에 비하면 어린애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크리스토프는 그의 백성인 노예들의 할 일이란 "일하는 것이다" 라는 철학을 갖고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을 강요하고 채찍과 총검으로 다스려 도로와 농장에서 노동을 강제하고 조금이라도 태만한 자는 대중이 보는 앞에서 가차 없이 때려죽이고 총살하였다. 그 자신이 해방한 노예의 주인이 된 것이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토와 산업을 복구하여 가장 부유한 국가로 만들려는 불타는 야심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존심을 과시하는 거대한 궁성을 건설하였다. 국왕인 자신과 가족들의 거처로서 50개의 방을 가진 거창한 석조전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 비교될 만한 호화로운 궁성은 없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크리스토프는 이 성을 "산.스우시"(樂天宮)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는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르고 자신의 이름도 쓸 줄을 몰랐다. 하물며 정치, 경제, 과학, 문학 등은 알 수가 없었고 알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고 모든 것은 자신의 소유라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궁전을 베르사이유궁전과 같이 만들고 루이왕조식으로 마-마렛드공(公) 이니 레모네-드 백작부인과같이 귀족 제도를 만들어 즉 왕비를 마리.루이스여왕으로 칭하고 아름다운 시녀를 두어 시중들게 하였다.

국왕의 어의로서 스코트랜드인 의사를 데려다 놓고, 두 딸 아메지스와 아제빌을 위해서 피라텔피아의 젊은 여성을 가정교사로 초빙해서시가와 하-프, 미용과 예법등 왕녀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범절을 몸에 익히도록 했다.

이와같이 하여 왕으로서의 체제는 갖추었으나 (비록 걸 모양새에 지나지 않다 해도) 나라 안의 산업, 명령계통, 질서 등은 아직 정비되지 아니하였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그전보다

나아지질 않았고 애국심이나 국민 의식 등이 생겨날 수도 없는 오직 과거와 같이 가축처럼 묵묵히 일만 하여야 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것은 크리스토프의 통치철학이 가져온 결과이다. 그리하여 그는 국민들의 숭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 국가적 상징으로 될만한 거대한 성곽을 현재의 왕궁보다 1,000미터나 더 높은 "사제의 모자"산 꼭대기에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 성채에서는 섬 전체는 물론 사면의 바다까지도 한눈에 보이는 위치였다. 그리고 프랑스군 보다도 부-즈교 보다도 강한 어떠한 적도 물리칠수 있는 성채를 만들어서 당시 서인도제도의 흑인들 사이에 만연한 마교인 부-즈교는 물론 원수인 모든 백인들 까지도 두려움과 동경의 눈으로 이 성채를 바라보도록 하자는 것이 크리스토프의 염원이었다. 크리스토프의 이 염원은 돌과 벽돌들을 쌓아올리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산 꼭대기까지 길을 냈다. 이 길따는 작업에만 3,000명의 흑인이 동원되었다. 그것은 그 옛날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이집트의 피라오의 방법과 같은 것으로 남녀의 구분도 없고 밤과 낮의 구별도 없었다. 그들은 무거운 돌덩이나 포탄을 머리에 이고 1,000미터 산길을 올라가야 했다. 또한 피라미드를 세울 때처럼 석재와 기계류 대포 등을 개미들처럼 사람들의 근육의 힘만으로 산꼭대기까지 끌어올려야 했다. 오르고 내려오는 노예들의 행렬은 10km에 달하고 두 줄로 대열을 유지시켰다. 군데군데에 감시하는 감독자들이 있어서 채찍을 들고 날카롭게 주시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태만한자가 있을 때는 가차 없이 내리치곤 하였다. 크리스토프는 스스로 산길을 오르내리며 큰소리로 노예를 독려 하였고 태만하다고 보이는 자는 일벌백계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때려 죽이곤 하였다.

일 년이 지나갔다. 그 동안에 광폭한 폭군과 그의 부하들에게 맞아죽은 숫자만도 2천명이나 된다. 그러나 성채는 겨우 그 기초를 쌓았을 뿐이었다. 성채는 프랑스군이 다시금 쳐들어오기 전에 완성을 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크리스토프는 노예를 더 많이 동원하고 자재를 더 공급하고 해서 완공을 서둘렀다. 산정에서의 강제 노역은 몇 년째 실 사이 없이 계속되었다. 그에 비례해서 성채는 크고 높고 견고하게 모양이 갖추어져 갔다. 프랑스의 장군 루크레르가 버리고 간 청동포 300문이 산채로 옮겨져 배치되었으나 크리스토프는 그 3배인 900문을 배치키로 마음먹었다. 유럽으로 농산물(사탕, 커피들)을 싣고 간 선박은 돌아올 때에는 대포와 탄약을 싣고 돌아온다.

8년이 지났다. 나폴레옹이 "센트. 헤레나"에 유배된지도 5년이 됐다. 크리스토프도 53세가 되었으나 정력과 집념은 줄어들 줄을 몰랐다. 그리하여 그는 이 성채를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난공불락의 철옹성으로 만들 결심이었다. 그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성루는 지브롤터 요새로 알려져 있었으나 크리스토프는 자신의 성채를 그 지브롤터 요새보다도 배나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1820년 이 끝없는 노역에도 종말이 다가왔다. 크리스토프의 광폭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가서 사소한 일에도 심복 대신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예하 장군들을 노예와 함께 성채에서 노동을 시키는가 하면 자신을 지켜 주는 근위군에게 의심을 두고 40미터 성벽위에서 절벽을 향해 "앞으로 갔" 명령을 내려 전원을 추락 사망케 했다. 아이티식 "낙화암"을 연출한 셈이다.

이 무시무시한 폭군에게도 딱 한 가지 신통한 습관이 있었다. 그것은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미사를 받는 일이다.

"존.뵘다 쿡크"는 그의 저서 "흑인 황제" 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1820년 여름 어느 날 그리토프는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에 사소한 일로 처형한 한 승려의 명복을 빌고있던 중 그가 승려의 망령을 보고 놀란 나머지 큰 소리를 지르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대로 마루 바닥에 쓰러졌다." 라고. 이일은 순식간에 그들 고유의 북소리 전달 방법으로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국민들은 그가 하나님에게 천벌을 받은 것으로 받아 들렸다. 크리스토프는 아이티의 기둥이며, 법이요, 맥박이며, 의지력 이었다. 한번 그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 알려지자 그 순간부터 성채고 뒤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그 크리스토프도 아이티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었다. 크리스토프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제일먼저 군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어서 산상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무거운 짐을 내동댕이치고 손에 손에 몽둥이 연장 허다 못해 돌을 들고 잔혹한 폭군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왕의 목을 자르자"고 아우성치며 산밑 왕궁으로 쇄도해 갔다. 왕에게 등을 돌린 군대가 그들과 합세했다. 굳게 닫혀 있는 왕궁의 대문이 군중들을 언제까지나 가로막을 순 없었다. 그들에게 잡히게 되는 날 왕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영리한 크리스토프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를 이가 없었다. 그는 군중들에게 잡혀 찢어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결할 것을 결심하고 애용하는 은으로 만든 권총으로 자신의 심장을 쏘서 자살했다. 이로서 세계 최초로 위대한 프랑스 군대를 몰아내고 흑인 왕국을 세운 아이티의 크리스토프 앙리1세는 모든 꿈과 영화를 포기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갔다.

왕비 마리.루이즈와 두 왕녀 그리고 황태자는 왕의 시신을 폭도들에게 내어 주지 않으려고 한사람의 심복과 함께 시신을 담요에 싸서 들것에 싣고 뒷문으로 빠져 나와 산상의 성채로 올라갔다. 폭도들은 왕궁의 정문을 부수고 궁 안으로 밀고 들어가 왕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왕궁에 불을 지르고 왕을 찾아 산상의 성채로 쫓아갔다. 국왕을 모시고 가파른 산상까지 간신히 올라간 왕비 일행은 땅을 팔 시간이 없다 폭도들이 바로 코밑까지 밀고 올라오고 있지 않은가?.

"왕의 목을 따자"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그대로 있다가는 왕을 폭도들에게 내주는 수밖에 없다. 그때에 왕비는 성채 중앙 넓은 마당에 석회를 개어 놓은 거대한 통을 발견하고

왕비는 그 석회 속에다 왕의 시체를 던져 넣고 밖에서 보이지 않게 가라앉혔다. 폭도들은 기어이 왕을 찾아내지 못한 채 황태자를 체포해서 처형하고 왕비와 두 왕녀는 유럽으로 망명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크리스토프를 죽인 총알은 왕국까지 멸망시켰다. 폭군으로부터 해방된 아이티는 다시금 아프리카식 원시 상태로 돌아가 공작도 공작부인도 옷을 벗어 던지고 신도 벗고 맨발로 밭에서 일하는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상은 소설이 아닌 실화이다. 사실 그대로인 것이다. 산상의 성채는 흑인 왕이 죽은 이후 현재까지 150년간을 그대로 방치된 채 그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성채의 마당 한가운데 놓여 있던 커다란 석회의 통도 그 속에 왕을 삼킨 채 그대로 있다가 굳어서 돌이 된 채로 남아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는 최초의 흑인 왕국의 수도로서 서인도제도중에서도 가장 변화했던 아이티엔 항구도 지금은 일년중에 겨우 3,4척의선박이 출입하는 작은 어촌에 지나지 않는다. 이곳에서 32km 거리에 산.스시(樂天居)폐허가 있다.

2-8. 아이티의 근현대사

식민제국주의에 맞서 무력항쟁으로 독립을 쟁취한 신생국 아이티공화국은 그 이후 앞길은 그야말로 험난했다. 심지어 미국은 남부 농장지대의 흑인노예들이 봉기할까봐 아이티를 60년 동안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티는 1804년에 독립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됐다. 백인의 구미 국가들은 누구도 이 신생 흑인 국가를 외교적으로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혁명의 수출을 두려워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실제로 아이티는 1822년에 같은 섬에 있는 에스파냐의 식민지 산토도밍고(현 도미니카 공화국)를 침입해 노예제를 종식시켰다. 19세기 전반기에는 식민 본국이던 프랑스가 아이티에 대한 각종 압력을 주도했다. 프랑스는 1822년에 아이티를 침공했었고, 프랑스는 1838년이 되어서야 아이티를 승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프랑스 대농장 소유주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억5000만 프랑의 대가를 요구했다. 바꿔 말하면 가난한 신생 국가는 출발부터 막대한 금액의 부채를 짊어져야 했고, 이는 두고두고 아이티에 부담이 됐다. 당시 프랑스는 미국에 루이지애나를 8천만 프랑에 팔았으니 1억 5천만 프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이었다. 이 돈을 아이티는 1948년에 가서야 모두 갚았다. 143년 동안 빚을 갚은 것이다. 19세기말에는 나라 예산의 80%를 프랑스에 바쳐야 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의 승인이 뒤따랐으나 노예제 국가인 미국은 이런 국제적 행렬에 걸 수 없었다. 미국이 아이티를 승인하게 된 것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에 와서였다. 19세기

후반이 되면 아이티는 프랑스의 놀이티에서 열강, 특히 미국과 독일의 각축장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19세기 말에 쿠바로부터 관타나모를 장악하고, 윈드워드 해협의 건너편에 있는 아이티에 개항장을 장악하기 위해 해병대의 상륙을 시도하기도 했다. 프랑스·미국·독일 자본들이 아이티 지배층을 장악해 들어갔으며, 1843~1911년에 대통령이 된 16명 가운데 11명이 민중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났다. 아이티는 여전히 건강한 혁명의 활력을 지녔던 것이다.

독립은 했어도 정부에 돈이 없으니 외국 상인들이 경제의 실권을 장악했다. 아이티가 개혁을 시도하려 할 때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은 방해했다. 아이티의 민족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들 국가들은 변란을 일으켜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아이티인 매판세력을 키웠다. 200년 동안 무려 32번의 쿠데타가 외세의 사주에 의해서 일어났다. 민족자결주의를 선언하여 약소민족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던 미국의 윌슨 대통령도 1915년 아이티를 침공해서 식민지화 했다.

20세기가 되면서 아이티는 미국의 놀이티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1911~1915년이 결정적인 시기였다. 이 시기에 미국 자본의 승리가 확정된다. 다섯 명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은 대통령궁에서 폭사하고, 한 명은 독살됐으며, 나머지 세 명은 혁명으로 쫓겨났다. 마지막 대통령인 장 브뤽 기욤 삼은 프랑스 공사관으로 피신했다가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민중의 저항을 제압하고 자 미국은 아예 1915년 7월 아이티를 군사적으로 침공해서 점령했고 1934년까지 통치했다. 미국의 자본가들은 즉각 중앙은행인 ‘아이티 은행’을 장악하고 아이티는 미국의 보호국, 사실상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중남미 국가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우려한 미국은 아이티를 독립 공화국으로 인정하더라도 계속해서 ‘반공의 요새’라 부르면서 아이티의 철권적인 친미 독재정부를 지원했다. 미국이 철수한 후에 1950년대에 그 악명 높은 30년간의 철권통치 독재자 뒤발리에(Duvalier) 파파독(Papa Doc) 부자 대통령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귀에는 “파파독, 베베독”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 20세기 역사는 미국의 직·간접의 점령과 개입, 이로 말미암은 만성적인 정정 불안, 프랑수아 뒤발리에와 장클로드 뒤발리에 부자의 30년에 걸친 무단독재(1957~1986)가 이어졌다. 처음에는 빈민들에 대한 공약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곧 통통 마쿠트(Tontons Macoutes)라는 흉한들을 동원해 사악한 억압정책을 펼쳤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간헐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베이비 독(Baby Doc)이 아버지의 정책을 계승하다가 1986년에 축출되었다.

아이티에 그나마 서광이 비추어진 것은 1980년대 중반에 횡행한 카톨릭계내 해방신학의 영향이었다. 가톨릭 신부이며 해방신학의 신봉자인 “장-베르트랑 아리스티드”가 “복음도 중요

하지만 가난 퇴치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면서 비폭력과 화해를 슬로건으로 정치권에 들고 나왔다. 그가 1990년 말 아이티 국민의 절대 다수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끊임없는 민중의 저항과 두 차례에 걸친 민중 신부 장베르트랑 아리스티드의 대통령 당선과 미국이 지원한 쿠데타로 인한 망명으로 점철된다. 경제운용을 독점하고 있는 친미 매관세력들이 그냥 돌리가 없었다. 아이티 군부는 1991년 9월 쿠데타를 일으켜 아이티를 빨갱이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공격을 퍼부으면서 아리스티드 대통령을 몰아냈다. 이 과정에서 아리스티드 대통령을 사수하려는 수천 명의 아이티 국민들이 군인들에게 학살당하기도 했다.

1994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UN은 아이티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아리스티드를 대통령직에 복귀 시켰다. 아리스티드 대통령은 연임제한에 걸려서 물러났다가 2000년 말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다시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2001년 부시 정부가 집권 후 아리스티드의 좌파 성향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미국 정부는 아이티에 가혹한 경제 제재조치를 취했으며 각종 국제기구에도 압력을 가하여 아이티에 대한 경제원조와 차관을 막았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암암리에 아리스티드 반대파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며 아리스티드 정부를 교체하려는 공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었다. 오늘날 아이티의 정부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은 미국의 경제제재와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봉쇄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아이티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르네 가르시아 프레발은 2세기가 넘는 아이티의 역사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돼 임기를 제대로 채운 두 번째 대통령이고 민중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지만 많은 아이티인들은 아리스티드의 귀환을 바라고 있었다.

끔찍한 비극적인 역사를 통하여 어렵사리 존재해 온 아이티의 오늘날은 여전히 안팎으로 고난을 당해오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부패한 정부가 민중의 가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폭력적인 테러로 나라를 통치해오고 있는 것이다. 정확히 15년 전 1995년에 미국은 아이티를 침공하면서 평화와 번영과 민주주의를 약속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에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영국의 블레어 수상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레토릭을 구사했다. 그러나 이라크와는 다른 한 가지 차이점도 존재했다. 미군은 4년 전에 아이티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자를 대동했다. 아이티 군부에 의해 축출되었던 장-베르트랑 아리스티드(Jean-Bertrand Aristide)가 그 인물이다. 그는 성직자로 빈민의 해방을 설교했었다. 민중이 그의 복귀를 환영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를 강력하게 통제했다. 그는 IMF와 세계은행이 지령한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아이티 민중은 더 가난해졌다. 물론 아이티의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다.

미국은 아이티가 미국의 수출 식품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 조치는 아이티 소농의 농산물 시장이 박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다. 아리스티드는 이런 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이 빈민에게 했던 약속을 배반했다. 곧 지지자들이 떨어져나갔다. 2000년 선거에서 그는 선거 부정을 통해서만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대중의 이반이 가속화되자 아리스티드는 자신이 한때 반대했던 과거 독재 정권의 수단들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다. 야당 세력 중의 하나인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전국 조정위원회(National Coordination for the Advance of Women’s Rights)’는 이렇게 말한다. “1994년 정권을 장악한 후 아리스티드는 대중의 손아귀에서 주도권을 빼앗고 사회 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했다. 정권이 2001년부터 일말의 양심도 없이 전 국민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참혹한 전쟁은 여기서 기인한 것이다.”

아리스티드의 정당은 깡패 집단을 동원해 반대자들을 겁주고, 공격하고, 살해했다. 그러나 그런 억압으로도 반대 운동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었다. 여기에는 한쪽으로 노동자와 학생에서 다른 한쪽으로 구 상층 계급의 제 분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력이 참여했다. 아리스티드는 빈민 지구에서 일정한 지지 세력을 유지하기도 했다. 10여 년 전에 그가 남발했던 혁명적 언사를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야당 세력이 독자적인 빈곤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지지가 유례없이 작은 수준이었지만 대중 운동 세력이 아리스티드를 평화적으로 물러나게 압박하는 것을 저지할 만큼은 되었다.

한때 금욕적인 해방신학자였던 아리스티드 자신이 부자가 되었고, 그것은 그와 가까웠던 소수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대중의 빈곤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불만이 증대했다. 연정에 참여했던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 반대로 돌아섰다. 경제 과두의 일부 분파가 여기에 편승했다. 미국 국적의 섬유 사업가 안드레 아페드(Andre Apaid)가 야당 세력인 184 연합(Group of 184)의 지도자가 되었다. 아리스티드의 대응은 무장 폭력단체 키메라(Chimera)에 돈을 대주면서 평화로운 반대 시위를 공격케 하는 것이었다. 이런 혼란 상황이, 아리스티드의 전임 독재 정권들에 봉사했던 흥한들과 살인자들에게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주었다. 그들이 이웃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아이티로 진입해 들어와 주요 도시들의 통제권을 장악했다. 아리스티드 자신이 운용하던 키메라 그룹에서 떨어져나온 파벌들이 이를 도왔다.

미국 정부는 처음에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정책을 취했다. 아리스티드가 미국의 통제를 따르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었다. 미국 정부는 아이티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라크의 저항 세력을 분쇄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아리스티드와 야당 세력에게 합의안을 만들라고 압력을 넣었다. 친미 성향의 정치인이 다음 대선에서 권좌에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이 정책 방향은, 미국 군대를 전혀 동원하지 않고 아이티를 완벽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부시 주위의 우익 강경파들의 마음에 쏙 들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도시들을 장악해 버린 무장 집단들 사이에서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었다. 그 인물이 바로 기 필립(Guy Philippe)이었다. 전직 경찰국장인 이 자는 도미니카공화국으로 도주하기 전에 에콰도르의 미군 기지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었다.

《마이애미 헤럴드 Miami Herald》 2월 28일 토요일자 인터뷰 기사에서 필립은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장군이라고 말했다. “오늘날의 칠레를 만든 것은 피노체트”라며 그는 기쁨을 토했다.

1990년대 민중의 절대적인 희망이던 아리스티드지만 그가 지배한 아이티의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의 전임자들과 다름없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 유지를 위해 반민주주의적 압제를 저지르고 부정부패를 거듭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티 현대사 내내 이어지는 엘리트들의 암살과 국외 망명으로 아이티 현지에 뜻있는 엘리트들의 씨가 말라갔고, 권력과 권력을 노리는 자들의 투쟁 속에서 나라와 국민들의 상황은 나날이 심각해졌다.

폭력과 부정부패로 점철되어 권력투쟁을 하는 아이티의 안정 회복은 이제 아이티 독자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하지만 아이티의 역사에 ‘악의 꽃’처럼 들어와 경제적, 군사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그리고 역사와 문화적인 연계성으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프랑스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갈구하는 이 나라를 국제사회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아이티의 한 시사잡지는 이렇게 한탄했다. “아이티는 폭탄에 위협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라크처럼 ‘경제원조 봉쇄’로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겐 핵무기도 없고, 또한 다른 위협을 실행할 힘도 없으며, 그렇다고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국제사회의 도움 청할 길 없어 막막 지난 2005년 1월 1일 독립 200주년 기념일을 전후로 나날이 심각해지던 아이티의 내란이 아리스티드의 망명과 유엔의 개입으로 겹보기에는 일단 수습의 국면을 맞고 있는 듯했다. 중앙아프리카 망명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아리스티드는 자신이 권좌에서 물러난 것은 프랑스와 미국의 음모에 의한 납치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유엔과 미국, 프랑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소에 부치고 있었다. 음모든 그렇지 않든 확실한 것은 독립 200주년을 맞은 아이티에 다시 외국 군대가 주둔했었다는 사실이다. 아이티의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은 이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고달픈 현실에 맞닥뜨린 셈이었다.

3. 나오는 말

아이티의 역사는 한마디로 비극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과거역사 속에서 위대한 흔적들을 볼 수 있었다. 최초의 흑인공화국이었으며, 노예해방을 위한 투쟁과 독립을 쟁취하였고 엄청난 노동과 강제노역에 의한 부의 창출과 성채의 건축, 그리고 아프리카의 부두교의 계승 등 억압과 착취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독특한 아프리카의 정신과 문화유산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남아 있는 아이티의 현실이란 절대적 빈곤과 지진으로 인한 파괴와 붕괴 그리고 엄청난 상처이다. 온세상이 아이티를 주목하고 있으며 휴머니즘적인 관심 혹은 종교적 관심에서 우러나는 인간애를 전하고 있다. 필자가 소속된 교단에서의 재해구호헌금은 날마다 역사적 기록을 갱신하고 날마다 놀람과 감사로 이어져 왔다. 필자의 날마다의 기도에서 빠지지 않은 아이티의 재해구호는 그래서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되어야 하고 장기적이며 구체적이며 전문성을 가진 체계적 단계적 지속적인 도움으로 생명을 구하고 풍성케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잠잘 곳과 일자리를 해결해주는 것을 포함하여 피폐해진 그들의 역사를 새롭게 세워줄 수 있는 건강한 사회건설과 민주화 그리고 건전한 시민정신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나라와 사회건설을 위하여 멀리 내다보고 치유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재해구호현실은 서구열강들의 제국주의적인 식민통치와 각축이 벌어졌었던 과거 수세기 동안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함께 땅을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경쟁적인 모습과 물질공세와 구호의 도움을 통한 국제정치적 외교적 영향력 확보 등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듯한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아이티역사의 전문가인 서울대 최갑수교수는 최근에 한 발언가운데 “아이티를 살리는 방법은 아이티가 살도록 내부 시민사회가 독자적인 회복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다” 라고 한 적이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건전한 시민들의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과 도움이 의존성이 강한 그들을 또 다시 가난의 대물림과 착취구조 속에 살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재해구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주어 섬기는 사랑이어야 한다. 독일교회의 디아코니아와 사회선교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요한 헨리히 뷔헤른의 정신을 빌려서 정리하자면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섬김과 나눔이 행동하는 사랑의 개념으로서 첫째 도움이 필요한 곳과 사람과 대상을 찾는 사랑이어야 하며, 둘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전하여지는 돕는 사랑이어야 하고, 셋째는 희생과

헌신이 되어주는 사랑이어야 하며 넷째는 그들을 현재적인 재난, 가난, 절망, 파괴와 상처로부터 그리고 영적 타락과 인간성 상실로부터 구원하여 온전케 하며 참된 평화와 인간성회복과 건강한 사회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구원하는 사랑이어야 할 것이다.

ㅣ 참고문헌 ㅣ

- 김동석(뉴욕뉴저지유권자센터소장), 당신은 아이티의 처절한 역사를 아는가?
- 노엄츨스키, 『정복은 계속된다』 pp.286-318(아이티에게 독립은 없다)
- 박구병, 참사의 땅 아이티의 슬픈 역사
- 박병규, 스페인어권 카리브 해의 인종 혼종성과 인종민주주의, 이베로아메리카 제8권 1호(2006)
- Paul Clammer, Michal Grosberg, Jens Porup, Dominican Republic & Haiti, lonely planet(2008)
- 신비인, 부두교 왜곡된 아프리카의 정신: 안티뉴스
<http://antinews.or.kr/bbs/board.php?bo-table=502&wr-id=48>
- 이재희역, 아이티 비극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http://kr.blog.yahoo.com/e01075/5.html?p=1&pm=1&tc=6&tt=1267022271>
- 인터뷰: 아이티미션USA 박병준선교사: “아이티에 구호가 잘 진행되고 지도자가 세워지길”
-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이두부 역, 가난한 휴머니즘: 존엄한 가난에 부치는 아홉 통의 편지, 이후출판사(2007)
- 주경철, 문명과 바다33 아프리카 북동쪽 노예무역-강제노역보다 하인유형 많아
<http://hani.co.kr/arti/society/life/287988htm>
- 아이티 기담: 세계 유일의 흑인왕국 하이티: <http://kr.blog.yahoo.com/e01075/30>
- 아이티 범죄율 급증, 교회가 표적:
<http://kr.blog.yahoo.com/edk1075/273.html?n=1&nm=1&tc=6&tt=1267022271>
- 인터넷 자료 “아이티 혁명과 호안 미로”
- 부두교의 좀비, 아이티 부두교: <http://kr.blog.yahoo.com/e01075/274>
- 참여연대와 경계를 넘어 공동주최 기획간담회 자료: “재난 속에 묻혀버린 아이티의 과거와 현재, 아이티 재난을 보는 우리의 시” 2010. 2. 25
- 최갑수(서울대 서양사교수), 질곡의 역사로 얼룩진 ‘아이티비극’: 2010 02/02 위클리경향 861호
[http:// 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001281113321&code=117](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001281113321&code=117)
- Chris Harman/이재희역, 아이티의 점증하는 위기를 악용하는 미국, 아이티 사태보고 및 분석자료,
<http://kr.blog.yahoo.com/e01075/6.html?p=1&pm=1&tc=6&tt=1267022271>
- 독립이 원점으로: 아이티의 비극/초록감자,
<http://kr.blog.yahoo.com/edk1075/290.html?p=1&pm=1&tc=6&tt=1267022271>
- 캐리비안의 해적-낯선 조류: <http://wikipedia.org>

한국정부의 아이티 지원계획

이 재 완 과장(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 인도지원과)

민 · 관 합동 아이티 재건 · 복구 사업 계획

1. 민·관 합동 실사단 실사 결과

- 실사 기간 : 2010. 2. 23 - 3. 31
- 실사단 구성 : 이재완 인도지원과장(단장) 외 11명
- ※ KOICA · 지경부 · 수출입은행 등 정부관계자, 한전 · 수자원공사 · 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가 및 해외원조단체협의회 ·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등 민간 대표 포함
- 실사 주요 내용
 - 재무부 장관전력청장레오간 시장 등 정부 주요 인사 면담
 - 레오간 지역 등 사업 후보지 답사 (Chatulet 마을 등)
- ※ 건물의 80-90% 파괴된 지역이지만, 현재 재건 · 복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PKO가 주둔하고 있어서 재건 · 복구 사업지로 적합

2. 민간 협의회 개최 (2010.3.4)

- 외교부, KOICA,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외 9개 단체 참석
- 민간 협의회 주요 내용
 - 아이티 실사 주요 결과 공유
 - 주요 NGO 재건·복구 사업 관련 입장 파악
 - 향후 협력 방안 논의

3. 향후 계획

- 3.31(수), 아이티 재건공여국 회의 준비
 - 아이티 측 현지 수요를 감안, 우리 기여 계획 수립
- ※ 아이티 재건공여국 회의 준비회의 개최 (3.17, 산토 도밍고)
 - 복구 및 재건 수요 총 115억불 추산
 - 레오간 등 최대 피해 지역 중심 인프라와 교육보건 등 서비스 확충 필요

한국교회의 효과적인 아이티 지원사역

박재범 목사(기아대책 CDP개발본부 본부장)

1. 한국교회를 향한 아이티 지원의 과제

2010년 1월 12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0만명이 넘는 사상자와 300백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번 재난은 21세기 들어 한 국가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자연재난이며 한 국가의 수도 중심부를 강타한 재난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킨 엄청난 규모의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재난과 마찬가지로 아이티의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세계 각국의 관심과 신속한 지원과 대응이 진행되었고 그로인해 재난 초기에 일어난 재난직후의 공황상태가 점차적으로 진정 되어가고 있다. 특별히 세계 각국의 관심 이상으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관심과 후원은 그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적극적이고 전교회적으로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후원금이 모금되었고 또 많은 한국교회의 관계자들이 현지를 방문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관심은 단순히 한국교회의 영역을 넘어 한국사회 전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별히 아이티 재난을 위해 교단과 기독교NGO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협력을 하기 위한 “한국교회아이티연합”을 출범한 것은 한국교회가 재난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협력과 지원체계를 정립하는데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처럼 금번 아이티 재난은 한국교회의 전 교회적 관심과 한국사회의 이목을 한 몸에 받는 동시에 아이티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사역에 대한 요청과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섬김과 나눔, 치유, 그리고 선교의 견지의 디아코니아적 견지에서 아이티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또한 상호협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국사회에 한국교회의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데 귀한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긴급구호의 정의와 진행 절차

1) 긴급구호의 정의

한국의 NGO단체들의 국제사회에서 긴급구호를 시작한 것은 1994년 르완다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호활동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국제적인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즉 전쟁, 쓰나미 지진해일, 지진, 분쟁, 기아 등 다양한 재난의 현장에는 한국 NGO의 활동이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불러일으키는데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 NGO의 발달의 역사만큼 긴급구호 활동의 진행해온 기간도 짧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긴급구호는 단지 초기대응(initial response)활동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긴급구호란 천재지변, 인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를 당한 사람과 지역에 대한 구호 및 구조는 물론 그 지역이 최대한 빨리 재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재난 발생 직후의 긴급한 인명구조 및 의료 지원등의 초기대응(initial response)활동에서부터 재난으로 파괴된 환경과 삶의 조건을 복구 하는 재난 복구(restore), 이어서 복구된 환경을 재해 주민들이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개발(development)사업까지의 모든 활동을 긴급구호라고 말 할 수 있다.

2) 긴급구호 진행절차

긴급구호의 절차를 간략하게 한다면 일반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각 단체들은 긴급구호를 진행하기 위한 선발대를 파견하게 된다. 최소 48시간에서 72시간 내로 재난의 현장에 선발대를 파견하여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지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것을 본부에 보고하게 된다. 또한 긴급구호 초기대응팀이 활동할 수 있는 사전 준비와 인프라를 구축하며 현지 정부와

UN과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선발대의 활동을 통해 본부에서는 긴급구호팀(초기대응)을 파견하게 된다. 긴급구호에 있어서 초기대응활동으로 는 인명구조, 의료지원, 식수 및 식량, 기초생필품 키트지원, 방역 활동 등의 활동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부상자와 이재민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활동을 진행한다.

초기대응활동은 재난의 규모나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복구 및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게 된다. 기초조사는 정부 및 UN의 계획을 기초로 하여 각 단체에서 그 특성과 전문성에 부합한 계획들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계획에는 복구 개발을 위한 지역조사 및 장소 선정, 현지 수혜자의 필요 및 참여가능성, 복구 규모 및 예산, 정부와의 협력가능성 등 다양한 견지에서 사전 조사 및 평가를 통해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진행되게 된다.

이번 아이티 지진의 경우 그 피해의 규모 및 범위가 매우 넓고 매우 크기 때문에 그만큼 초기 대응기간도 길어지고 기초 조사 및 평가도 면밀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미 많은 단체가 이러한 견지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아가고 있다.

3. 효율적인 재난지원을 위한 관점

한국교회는 금번 아이티 지진피해에 대해 매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특별히 그동안 많은 재난에 대한 관심과 활동으로 한국교회에 국내 및 해외 재난에 대한 관심과 반응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히 아이티 지진에 대한 한국교계의 반응은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은 관심과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별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협의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아이티연합”을 발족하여 한국교회가 재난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수립해 나아가고자 지속적인 회의와 협의를 진행하고 해왔고 오늘과 같은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후원만큼 한국교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통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디아코니아적 견지에서 섬김과 나눔, 치료, 선교의 사역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한국교회가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견지해야 할 몇가지 관점에 대해 언급하고 자 한다.

1) 상호협력을 통한 효과적 지원

일반적으로 재난지역에서 긴급구호를 통한 복구 및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각 단체 또는 교단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서로간의 정보 교류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한국 단체끼리 갈등을 겪는 경우도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의 중복적인 지원이나 수혜자 또는 현지 주민들과는 상관이 없는 실적과 외형적인 결과위주의 사업이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인이 인도네시아 쓰나미 재난 피해 이후 복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서는 대만 NGO와 중국적십자사의 다소 경쟁적인 지원활동으로 인해 현지인의 상황이나 여건이 깊이 고려되지 않은 채 임의로 정착촌을 건설하였다. 그로 인해 지금은 사실상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처럼 남아 오히려 흉물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사실상 중국의 오성기나 대만 NGO의 로고가 오히려 좋은 이미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를 보게 된다. 이처럼 복구나 개발은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지원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니아스섬 지진이나 족자카르타 지진시 기아대책과 굿네이버스는 매우 좋은 협력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모든 재난이 현장이 매우 어렵고 예측 불허한 일들이 계속되지만 이러한 현장속에서 기아대책과 굿네이버스는 의료구호캠프를 서로 협력하여 사용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였고 또한 서로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현지 정보를 공유하므로 효과적인 긴급구호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교단과 교단이 서로협력하고 교계와 교계가 그리고 교회와 NGO, NGO와 NGO가 서로 경쟁적인 지원이나 사업의 진행이 아니라 상호 협력을 통한 정보교류, 지원, 협력등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그 방법을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문성

긴급구호 및 재난복구사업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교회도 재난을 위한 홍보와 모금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또한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많은 헌금과 후원금들을 모금 하였다. 이것은 단지 많은 후원금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소중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하는 과제 또한 함께 부여받았다. 본인이 아이티 재난이후에 많은 교계 분들과의 대화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긴급구호의 초기대응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있지만 그 이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구 및 개발에 대한 계획이나 전문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많이 있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계의 재난에 대한 지원이나 후원에 대한 관심만큼 또한 이에 부응하는 전문성을 갖추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한국교회와 교단이 이러한 복구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전문 인력의 부족과 또한 사업의 기획 및 진행에 대한 경험 또한 풍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일을 진행하는 것은 생각지 못한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실상 많은 교회나 NGO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긴급구호나 지원을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한국에는 해외원조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많은 단체가 있다. 이곳에 가입된 많은 회원단체들은 해외원조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재난 시 의료지원이나 식량 지원 등의 초기대응을 진행하는 단체들은 많지만 초기대응에서부터 복구개발 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는 단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르완다 난민구호 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복구개발을 진행해 온 한국의 단체들 특히 기독교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제는 전문성을 갖추어가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매우 희망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3) 지속가능한 사업 기획 및 추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난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에 따른 많은 반응과 지원도 아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재난에 관한 언론의 관심이 떠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반 대중이나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관심도 사라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재난지역의 신음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후원이 사라지게 되는 그 시점이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고통과 아픔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재난으로 발생한 수많은 재난 고아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평생 모아온 재산과 집을 모두 잃고 길바닥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진정한 고통이 시작되게 된다. 또한 아이티와 같이 가난한 국가에서는 사실상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참여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빵을 지원하는 경우 그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빵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재료를 구입하고 빵을 만들고 지원하는

모든 일에 현지인들이 참여하고 이를 통해 기술과 직업을 동시에 지원하며 그것을 토대로 공동체를 개발 하고자 하는 가치관과 의지를 개발하는데 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카니스탄 전쟁 후에 그곳에 농업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농업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농업용수였는데 농업용수를 구하기 위해 5km넘는 수로를 파고 그 수로를 통해 들어오는 물로 농업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성공을 하였다. 그 당시 수로를 만드는 일은 포크레인이나 기타 건설기계로 진행하지 않았다. 그곳에 사는 현지인들의 순수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현지들이 참여하고 또 그 노동을 통해 임금을 지불하므로 노동력과 생산력을 증대 시켰고 결국 자신들의 만든 수로를 통해 들어온 물로 농장을 일구는 성과를 얻게 되었고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통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시적 지원이나 일방적인 혜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인들이 처음부터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선교 중심적 접근

기아대책은 긴급구호를 진행함에 있어 단순히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떡을 제공하므로 이들이 단순히 떡만을 바라보는 단계에서 기독교가치관으로 자신들을 개발하고 공동체를 개발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아대책 긴급구호의 가장 큰 목적이요 방향이다. 즉 아프리카의 잠비아 출신인 담비사 모요(Dambisa Moyo)는 지난 50년간 진행되어 왔던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Bad Aid라는 말로 그의 책에 서술하고 있다. 즉 아프리카에 지원에 대한 개발의 효과성에 대해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심각한 원조 의존과 부패, 시장 왜곡과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 내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아이티 지원이후에 한국교회에 돌아오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렇기 위해서는 단순히 떡 즉 식량이나 그들의 시급한 육체적인 필요만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발 마인드 형성을 위한 건강한 기독교가치관의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도자 개발이라던가, 세계관 교육을 통해 이들의 마인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독재정부 실정과 대형재난으로 인해 의욕을 상실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복음을 통한 새로운 변화와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해주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 전파의 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자립, 자조를 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독교 본연의 가치를 갖게 해 주는 것이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된 한국사회의 기독교 선교를 모델링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5) 민관군의 협력을 통한 한국의 위상정립

일본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긴급구호 플랫폼(relief platform)을 통해 긴급구호팀을 파견하게 된다. 자이카(JICA)를 중심으로 한 긴급구호팀은 본인은 인도네시아 니아스 섬 지진이 나 파키스탄 지진현장에서 또 모잠비크 수해현장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 때마다 일본의 긴급구호의 활동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지원의 모습을 보고 감탄을 금하지 않을 없다. 그들의 긴급구호 활동에서 특이한 점은 긴급구호 초기부터 정부 및 군관계자는 물론 기업관계자들까지 함께 활동을 하면서 민관군 협력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로인해 일본의 긴급구호를 받는 많은 나라에는 그들이 지원한 산물들, 가령 "Japan Road" 라고 사람들에게 불리는 그런 결과물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이미 아이티에는 한국평화유지군(PKO)가 주둔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과 외교통상부에서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구계획에 있어서 민관군 협력을 통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가령 PKO의 경우 한국 교회와 NGO들의 활동을 위한 안전을 확보하고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지원하며 코이카는 한국정부 또한 현지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민간단체와의 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한국교회가 현지에서 복구사업을 진행하는데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현지인들에게 한국교회와 민간단체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한국의 이미지 제고와 국격을 높이므로 국내외적으로 기독교와 한국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한국교회 아이티 지원을 위한 제언

1) 상호 협력을 위한 현지 민관군 협의체 구성

한국교회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한국교회아이티연합”을 출범시켰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현지에도 아이티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재난이 발생하면 발생 후 3일 이내에 유엔과 정부 그리고 군관계자들이 주도하는 회의가 현장에서 진행이 된다. 초기대응시에는 매일 그리고 그 이후 복구개발사업이 진행될 때는 일주일 또는 격주간격으로 회의를 통해 지원의 현황과 방향 그리고 협력에 대해

논의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처럼 한국교회도 현장에서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회의를 통해 정보교류, 지원, 상호협력, 대정부관계 등을 논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활동은 우산효과를 발산하게 되므로 매우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있다고 본다.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 한국교회아이티연합 또는 해외원조단체 협의회가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런 협력체계를 지속하여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단을 조직하여 사업진행을 지원과 협력 더나아가 관리 감독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2) 효과적인 업무분담을 통한 전문적 사업 진행

(1) 업무분담을 통한 전문적인 사업진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교회는 아이티를 지원위한 전문적인 기획과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업무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한국교회는 아이티지원과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한국교회 및 사회에 대한 보고(report), 재정의 지원, 현지에 협력할 수 있는 선교사 또는 인력을 파견, 사업의 관리 감독 및 평가의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적인 기독교 NGO와 전문단체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NGO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장단기 사업계획 수립

또한 장단기 계획에 대한 단체의 제안을 수렴하여 장기 계획과 단기계획, 시간의 만급을 요하는 계획을 분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식량지원, 식수지원, 임시거주지(shelter) 지원, 위생시설 지원 등의 시간의 급박성을 요하는 계획과 직업교육, 가치관교육, 지도자교육, 지속적 보호 시설지원, 자립기반 마련 등의 시간을 요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이것에 대한 기독교 NGO 및 전문단체의 의견과 제안을 받아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단차원에서 지원하거나, 교계차원에서 지원한 사항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재난지역에 산발적인 지원이나 외형적으로 각교단이나 단체의 이름을 내기 위한 계획보다는 어떤 계획이나 지역을 선정하여 교단과 교단이 NGO와 NGO가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므로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3)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또한 교단과 각 단체는 자신들의 기관이 전문성을 살려 타단체와 상호 협력을 하여 사업을 배분하여 진행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즉 한 지역에 고아원만 여러 개를 짓거나 필요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학교 또는 자립기반을 중복하여 설립하고 진행하는 것은 한국교회와 현지인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호 협력을 통한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3) 현지인의 참여와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이후 아체지역의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변화가 되었다. 즉 초기대응이후 복구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지의 물가는 쓰나미 이전보다 평균 3배이상 상승하였고 현지의 부동산 즉 외국NGO에 임대하는 주택가격은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 천정부지로 상승하였다. 또한 현지의 인건비 또한 엄청나게 인상되었지만 인상된 가격으로도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품귀현상도 빚어졌다. 기아대책은 이러한 현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매우 많은 노력을 하였다. 물론 처음에 예상한 예산안에서 사업을 집행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항상 물가의 인상폭을 감안하고 사업을 진행하기에 필요한 기자재등을 구입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초기 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수행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지인과 현지 기독교 NGO를 활용하였고, 또한 스텝들에게 NGO의 본질을 이해시키는데 중요한 스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그러므로 현지에서 수자원개발 사업과 학교건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렇듯 한국교회는 일방적이고 공여자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현지인이 참여하고 그들이 사업을 배우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자양분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참여자들안에서 제자가 양육되고 지도자들이 개발되면 그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며 또한 현지 NGO와 단체들에게도 매우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자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많은 고아들과 또 장애인들의 지원은 단순하고 일시적인 모금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도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모델들을 개발하는데 함께 협력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즉 아이들을 위한 일대일 결연이라든가, 장애인들의 자립프로그램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5. 마치는 말

2010년은 아이티 재난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정도로 아이티의 지진피해는 세계적으로 또한 한국사회에 구제와 나눔이라는 말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 커다란 사건이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21세기에 들어 한국교회는 더더욱 섬김과 나눔, 치유, 그리고 선교의 견지에서 디아코니아적 실천을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이티에 대한 지원은 한국교회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또한 한국사회에 한국교회의 역할과 그 영향을 미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려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기도와 섬김을 통해 아이티의 재난복구를 위해 교단과 교단이 교계단체와 교계단체가 그리고 교회와 NGO가 상호협력하므로 한국사회와 교회가 부여한 중대한 과제를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호협력, 전문적 접근, 지속가능한 방향, 선교중심적 사업의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민관군이 협력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영역의 업무분담, 그리고 경쟁이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협력, 그리고 한국교회중심의 지원이나 산발적이고 성과중심적 지원이 아닌 현지인이 참여하고 수혜가자 필요한 지원, 건강한 기독교 지도자를 통해 자립을 넘어 다른 지역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기독교가치관의 정착을 위한 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종 합 토 론

종 합 토 론

종 합 토 론